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26일)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20살 포교사단 '불국토 건설' 서원

6월 10일 출범 20주년 기념식 열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대 포교조직인 포교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법 정진의 원력을 모은다.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6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포교사단 출범 20주년 및 제7회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행사는 1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사의 역사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수를 통해 200여 포교사들이 배출됐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체는 요원했다. 1995년 포교사 고시가 실시되며 자격을 갖춘 포교사가 배출됐으며, 이들을 한데 모으는 포교사단이 2000년 3월 8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1200명의 포교사에 7개 지역단을 갖췄다. 이후 현재 국내외 14개 지역단에서 5000여 포교사들이 활동하는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로 성장해왔다.

현재 포교사단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미국 LA까지 14개 지역단 산하 34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만 3000여 포교사가 일종의 동문처럼 지원하고 5000여 포교사가 사찰을 비롯해 군 · 병원 · 복지관 등 포교 현장을 누비고 있다. 특히 종단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부대가 위치한 오지를 찾아가고, 철야 염불봉사를 하는 등 포교일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코로나19로 포교전법에 제한이 있지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위기를 극복하자"며 "선지식들의 법문을 자주 듣고, 평소 닦은 수행정진력을 바탕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행복과 사회 안녕을 기원하며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전법포교에 매진한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향란 충북지역단 포교사가 총무원장상 개인상을, 울산지역단 군포교 문수팀(팀장 배정숙)이 총무원장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지역단 여원태 포교사와 남부총괄통일포교팀 등에게 포교원장상과 총재상 등을 수여했다.

특히 김향란 포교사는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서 매월 칼국수 보시를 꾸준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됐다.

20주년 기념식 후 포교사단 집행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 5916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한 각종 전법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포교와 전법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조계종 포교사로서 긍지를 갖고 시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고 포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포교사 활동을 담은 포교사단 20년사 발간과 포교 다큐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복 개선 완료와 통일의 식집 발간 및 교육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 포교원과 함께 5대 수행법 정착을 위한 생활의례 확립 등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신규포교사 확보를 위해 불교대학 홍보 등에도 역주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 1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팔재계수계법회를 열고 새롭게 원력을 모으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

숫자로 보는 조계종 포교사단

5000명 2020년 현장 포교사

13000명 2020년 동문 포교사

14지역단 LA포함 전국 조직화

340팀 군 · 장애인 · 염불포교팀 등

코로나로 조촐한 행사 마무리
9월 12일 서울광장서 수계법회
백서 발간, 유튜브 전법 준비 중



6월 7일 해인사서 봉행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수륙대재'서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국군, 민간인 영가를 재현한 사람들이 오로단을 지나고 있다.

"한국전쟁 희생자 왕생극락 기원"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수륙대재 봉행

천년고찰 가야산 해인사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138만 무주고혼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6월 7일 대적광전 앞 비로탑 앞마당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고혼을 추모 · 천도하는 법회로 상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인사는 국가와 이념을 넘어 한국군 뿐 아니라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색 10만 위령등을 밝혔으며 추모음악회, 추모사진전 등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추모 법어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흐른 지금 현충일을 맞이하여 분노와 갈등이라는 공업을 치유하고자 해인사에서 수륙대재를 봉행한다"며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은 해원의 염원을 담은 정성스런 수륙대재 공양을 받으시고 본심으로 돌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누리라"고 설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진선미 · 정희용 · 김영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한산성 사찰 불사 '공명소첩' 발견

정각스님, 本紙에 제보해
공명첩 인증한 희귀 문서
남한산성 불사 확인 사료

남한산성에 존재했던 9개 사찰의 불사를 확인할 수 있는 희귀 문서가 새로 발굴됐다.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새로 발견한 희귀문서인 '공명소첩(空名小帖)'을 본지에 제보했다.

해당문서는 도광 8년(1828년 · 순조28년)에 작성됐으며, 남한산성 사찰 중수 및 관아 보수의 공덕에 따라 김시점(金時漸)이라는 인물에게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공명첩 발행에 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서 확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광주부유수(留守) 이지연이 남한산성 9개 사찰 및 관아 보수와 관련해 공명첩 200장을 발급했고, 새로 발견된 문서는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각 스님이 새로 발굴한 '공명소첩'. 남한산성 9개 사찰의 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새로 발굴된 문서는 '공명소첩'으로 '공명첩'에 대한 일종의 인증서이다. 이는 공명첩 위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공명첩에 비해 공명소첩은 발굴되지 못했던 사료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공명소첩은 63건 밖에 없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공명첩과 공명소첩은 내용이 다르다. 공명첩은 첩을 받는 사람의 혜택을 기록했다면, 공명소첩은 어떠한 이유로 혜택을 받는지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명소첩'은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의 중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정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자료를 발굴한 정각 스님은 "공명첩 발급을 기록한 공명소첩은 희귀하고 당시 남한산성 소재 9개 사찰의 중창 관련 예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선원 수좌들 하안거 정진 시작

6월 6일부터 석 달간

불기2564년 경자년 하안거 정진이 6월 6일부터 석달동안 전국 선원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산하 전국 100여 선원은 6월 6일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를 청해 듣고 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에는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일대사 해결을 위해 방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자년 하안거 결제일은 음력 4월 15일인 5월 7일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윤달 음력 4월 15일로 결제일을 변경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 총림 방장 결제 법어 5면〉

“금강산 신계사랑 법기암 노닐다 가련다”

圓寂 혜해 스님과 금강산의 특별한 인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는 5월 31일 밤 9시30분에 가련다.”

“스님, 9시면 9시지 왜 9시 30분이죠?”

“30분은 금강산 신계사랑 법기암 들러 노닐다 갈라고 그러제.”

한반도 분단 역사의 산 증인이이자 조계종 비구니 원로 보주당 혜해 스님이 법랍 77세, 세납 100세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5월 31일 오후 9시 30분, 예견했던 그 시간이었다. “유골은 금강산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혜해 스님의 출가사찰은 효봉 스님의 오도처로 알려진 북한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이다. 해방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한평생 수행에 매진하면서도 스님은 금강산을 잊지 못했다. 스님에게 금강산 신계사는 초발심의 상징이자 회향의 공간이었으며, 또 애틋한 그리움이었다.

2004년 남북불교계 협력으로 신계사 복원이 이뤄지자 스님은 환희심을 감출 수 없었다. 83세 고령에도 수시로 방북해 신계사를 찾았으며, 한번 방북하면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머무르며 손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고 잡초를 정돈했다. 남측 사람들을 경계하며 거리감을 유지하던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도 혜해 스님만큼은 ‘금강산 스님’이라고 부르며 남다른 존경심과 친근함을 보였다. 북측 관계자들의 배려로 출가사찰인 법기암 터에 올라 과거를 회상하고 참선하며 삼매에 들기도 했다.

방북 당시 시자로 함께했던 상좌 성본 스님에 따르면 혜해 스님은 신계사 복원 관련 수시방북초청자로, 복원이 진행되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십여차례 방북했다. 성본 스님은 “전각이 하나하나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참 행복해 하셨다”며 “‘금강산에서 출가했으니 금강산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고 항상 말씀하실 정도로 신계사를 각별하게 여기셨다”고 회상했다.

5월 31일 오후 9시 30분 입적
“유골은 금강산에…”유언 남겨
北 금강산 신계사 암자서 출가
복원 당시 80대 고령에도 방북
민추본, 사리탑 조성 적극 지원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당시 방북한 혜해 스님(사진 앞쪽)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복원 당시 신계사에서 한달간 머물며 봉사했던 김효례(백련화) 보살은 “혜해 스님은 그 존재만으로 큰 감동이었다”고 기억했다.

“신계사 대웅보전이 완공되고 법왕루 불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어요. 법랍이 높은 큰 스님이라는데 그 웃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천진하시던지, 내 평생 그런 스님은 정말 처음 봤어요. 상좌 스님들과 함께 법당에 참배하고 공양물을 올리시고는 ‘황성옛터’를 부르셨지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노래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울었거든.”

혜해 스님의 마지막 방북은 2007년 10월 13일 신계사 낙성법회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방북이 불가능해졌고, 금강산 신계사는 다시 스님의 마음 속 그리움으로 남았다.

혜해 스님의 다비식에는 햇무리가 장엄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엔 영롱한 에메랄드 빛깔의 사리 30여과가 남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스님의 사리는 더없이 영롱한 빛으로 스님의 높은 수행력과 고귀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며 “문도와 함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구와 사리 일부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 안치될 수 있도록 민추본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혜해 스님의 드높은 원력이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불교교류의 상징 신계사에 또 다른 상징으로 혜해 스님의 사리탑이 우뚝 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혜해 스님은 정말 금강산에 올라 노닐었을까. 성본 스님은 “우리 스님은 정말로 신계사도 가보시고 법기암도 가보시고 하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보주당 혜해 스님은 1921년 4월 27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1남 3녀 중 삼녀로 태어났다. 1944년(24세)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대원 스님을 은사로 행자 생활을 시작, 6개월 후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했다. 해방 이후 1946년 10월 수행의 길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와 무불 스님을 계사로 오계를 수지하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효봉 스님과 성철 스님, 청담 스님, 향곡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따라 한평생 수행에 매진해 후학들의 귀감이 됐으며, 선정에 든 혜해 스님의 몸에서 불꽃이 방광(放光)하는 등의 일화가 알려져 세간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1971년 이차돈 성사의 순교지인 천경림 흥륜사에 비구니 선원인 천경림 선원을 개원, 1980년부터 천경림 선원장 소임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죽비를 놓지 않고 정진 대중을 외호했다.

故선진규 원장 마지막까지 수행정진 당부

별세 2일 전 반조(返照)서 유언 남겨
6월 8일 87세 일기로 별세해
재가불교사회운동 이끈 주역

불교 계몽 운동가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이 수행에 대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고 별세했다. 선진규 정토원장 영결식은 6월 11일 김해 진영전문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선진규 원장 별세 2일 전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선건 정토원 사무장은 “임종 보름 전부터 주스로 곡기를 연명하시다 기운을 조금 차리자 사부대중을 위한 마지막 당부를 쪽지에 적으셨다”며 ‘정토원 사부대중 수행 수칙’과 ‘수행 목표’를 담은 유언을 낭독했다. 선 원장은 수행수칙으로 △나 자신이 나에게 미안한 일하지 말자 △남에게 욕먹을 언행 하지 말자 △한 없이 능력껏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를 제안했고, 수행목표로 △모두 존경 받는 신자가 되자 △바른 언행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자 △‘나무아미타불’ 일심청명으로 모두 불보살이 되자 등의 가르침을 전했다.



선진규 정토원장 영결식이 6월 11일 김해 진영전문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 모습.

영결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경남 일대 스님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문재인 대통령도 별도로 선진규 원장의 영면을 애도했다.

한편, 선진규 정토원장은 6월 8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4년 김해에서 태어난 선진규 원장은 평생을 불교운동에 매진한 재가 선지식으로,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당시 31명의 불교학과 청년불자들과 함께 ‘호미 든 관음성상’ 조성을 시작하며 새로운 불교계몽운동을 선언했다.

이후 포교에 진력해 봉화산 정토원을 설립했으며 1972년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선발됐다. 대한불교청년회 제10대, 11대 회장을 역임하고 1983년 김해 봉화산수련원을 설립해 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과 동국대 객원교수, 동국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고인은 노무현 캠프 전국불교대책위원장을 맡을 만큼 故노무현 대통령과는 높은 친분을 가졌으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 법석을 매년 봉행해왔다.

선진규 원장의 초재는 6월 14일 정토원에서 봉행됐으며, 막재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해=하성미 기자

〈관련 추모칼럼 6면〉

중앙신도회장에 주윤식 씨 단독 입후보

선관위 통과… 25일 선출 예정



조계종 제27대 중앙신도회장에 주윤식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사진>이 단독 입후보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두형)는 6월 8일 심사회의를 열고 주윤식 조계종 8교구 신도회장의 후보 자격을 확정했다.

주윤식 신도회장(법명 덕산)은 대구 중견기업 ‘우진’ 대표로 2019년 중국업체들과 3000억 합작사업을 따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윤식 신도회장은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1993년 법상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2017년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2019년 4월부터 신도 3000명이 하루 100원으로 교구 스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승보공양운동을 펼쳐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여 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김천과 구미, 상주 등 말사 70여곳을 아우르는 교구통합 성지순례를 기획하여 정기 모임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제26대 중앙신도회장인 이기흥 회장 임기가 9월 30일 끝남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회칙과 규정에 의거해 27대 회장 선출을 공고한 바 있다. 중앙신도회장 선거는 6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의정 스님 선법 스님 각산 스님 정과 스님 마가 스님

코로나 19 극복 비결 제시할 참선명상 대가들 총출동



종묵 스님 금강 스님 전현수 박사 이용태 변호사 백성호 기자

참선지도자협회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7월 1일 개강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수강생 더 많이 선발 특징

선명상참선지도사 인증 과정…그동안 5백여 수강생 배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참선명상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

도심 속에서 참선명상 대가들을 초청한 릴레이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 회장 각산)는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강남구 참불선원서 제4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

총 26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실제 삶에 적용되는 지혜와 선방 수좌의 실참수행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돼 주목된다.

그동안 500여 수강생을 배출한 한국참선도자협회의 선(禪)명상 참선지도사와 명상지도사 인증과정이기도 한 이번 강좌에는 일생을 수행으로만 일관한 조계종 선원장급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명상 고수들이 총출동한다. 커리큘럼도 참선의 진수인 간화선과 화두 수행법, 부처님 성불수행 안반선 호흡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심리치료 명상, 생활에 적용되는 마음공부 등 시대와 공감하는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의 중간인 8월 22일에는 충주 석종사로 선원장인 혜국 스님을 찾아가 현장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대강좌의 커리큘럼은 7월 1일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참선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나는 왜 간화선을 택할 수밖에 없나(7월 8일: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자비명상, 생활명상(7월 15일: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현대사회의 참선과 명상(7월 22일:이용태(사)한국총명상협회 운영위원장) △참사람 수행법(7월 29일: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불교명상심리치료(8월 5일:전현수 정신건강전문의) △선명상 마음공부법(8월 12일:백성호 중앙일보 기자)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8월 26일: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선방 수좌의 실제 참선(9월 9일:대승사 한주 정과 스님) △참선의 이론과 실제(9월 16일: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선법 스님) △참선이란 무엇인가(9월 23일:수도암 선현 종묵 스님) △각산 스님의 보충특강과 질의응답 및 졸업식(10월 7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용태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경영위원장은 "코로나 19의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서구인들은 그동안 신봉해 오던 물질 문명에 의구심과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물질문명 보다 마음과 정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마음 즉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참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도 "참선명상은 우리 내부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수용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큰 길"이라며 "이번 강의는 최고의 명상 대가들이 마음 수행의 길잡이 역할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커리큘럼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200명과 현장강의 100명 선착순으로 10월 7일까지 14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수료 후에는 수강생들과 즉문즉설 문답 시간도 마련해 공부중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협회 소속 기관서 실참도 실시 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강생을 더 많이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의는 참선지도자협회(02-451-0203)와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chambul3280/8029)로 하면 된다.

'최고의 설법가' 부처님 화법 배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6월 8~10일

이현정 박사 초빙해 스피치 강좌



"소수의 신도들 앞에선 법문도 곧잘 하는데 많은 대중 앞에 서면 정작 긴장을 해 고민입니다."

"직설적인 말투로 주위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화법을 배워 더 따뜻한 소통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떨지 않고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로, 온화하지만 핵심을 전하는 화법을 배우고 싶어요."

법문과 상담, 신도교육 등 다양한 소통 경험으로 '말하기' 만큼은 능수능란할 것이라 생각했던 스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제각기 자신이 가진 '말하기 약점'을 극복해 설법으로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비구니 스님들의 포부가 전국비구니회로 모였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6월 8일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설법스피치로 불교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다'를 개강했다. 조계종 승려인증교육이기도 한 이날 강좌는 〈불교 커뮤니케이션〉 저자이자 스피치 전문가 이현정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6월 10일까지 3일간 화법과 마음가짐부터 발성, 호흡까지 스님들의 설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강좌 첫날인 8일 서울 법룡사에는 멀게는 경주, 가까이는 수도권까지 전국 각 지역의 비구니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다. 목적은 같았다. 어느 자리에서건 좀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화법으로, 포교의 기본인 설법은 물론이고 주위와의 소통능력도 키우고 싶다는 것.

이현정 박사는 "아무리 법문을 잘하는 분도 많은 대중 앞에 서거나 낯선 환경에 놓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긴장되고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설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박사는 "부처님은 제일가는 설법가셨다. 부처님이 설하고 실제 교화하신 여러 내용과 교훈, 인연관계 등을 총망라한 것이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설법, 즉 불교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스스로 포교 역량을 키우고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 단계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이 같은 능력을 향상시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포교에도 일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 전국비구니회의 불교스피치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현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후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미 한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7월부터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유투브 강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상월선원 印만행결사, 예비 순례 韓서

상월선원 결사대중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화산서 진행

인도 만행결사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저녁공양 후엔 한국불교 발전 토론

한국불교 변화의 시작,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인도 만행을 앞두고 국내에서 예비 순례가 진행된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유명한 인도에서의 만행에 앞서 더위와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모으기 위함이다.

상월선원 결사대중은 6월 9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인도 만행결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도감을 맡은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유승 스님, 각성 스님 등 스님들과 인도 만행에 재가대중으로 참여하는 정충래 동국대 이사, 인도전문가 나인성 대승투어 이사, 불교계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자승 스님은 "국내에서 먼저 1주일을 인도에서 진행될 방식으로 대중들과 함께 만행을 하고자 한다. 저녁 공양 후에는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에 기여하기 위한 집담회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회의에서 예비순례는 11월 경 인도 날씨와 가장 비슷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1주일간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인도 만행결사 계획에서 공개된 대로 오전 3시 기상 후 오전 4시부터 10시간을 걷고, 저녁 공양 후 강연과 토론 등이 진행된다.

매일 30km의 도보순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체력을 다지고, 결사 의지를 함께 북돋을 예정이다.

한편, 상월선원 인도 만행 결사에는 25명 결사대중에 참여하기 위해 45명이 접수한 상황이다. 결사대중은 "이번 인도에서의 만행결사는 안거 수행을 회향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관광이 아닌 수행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문의 010-5416-0616(지객 원명 스님) **노덕현 기자**

'EM 지구사랑', 친환경 소독제 무상공급

EM과 구연산 복합체로 구성

본부 · 지부 중심 홍보 · 보급 중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인 EM을 활용 · 제작한 친환경 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계종 승가결사체 'EM 지구사랑 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 지구사랑)'이 무상 보급에 나섰다.

'EM 지구사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장균, 살모넬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바이러스 등에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본 구연산 EM 복합체를 무상 공급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EM 지구사랑'이 보급하는 구연산 EM복합체는 안양 한마음선원 1층 출입구에서 매일 1인당 2리터씩 무상 공급된다.

'EM 지구사랑'은 쌀뜨물을 EM으로 발효해 환경정화제로 바꾸는 EM 쌀뜨물발효기를 개발해 사찰과 지역공동체에 보급하고 교육하는 단체이다. (031)470-3215 **신성민 기자**

“영통사 복원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전 연 무원 스님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전
5월 29일~6월 3일까지 광수사서

2002~2005년 복원 과정과 순례
현장 촬영한 사진 50여점 선보여

물자 수송 통로 북측과 큰 이견
당위성 앞세워 끈질기게 설득해

개성 영통사는 고려 제 11대 문종의 넷째 왕자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이 출가해 개성 외곽 오관산에 한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년 고찰이다. 16세기 화재로 전소한 것을 2002~2005년 남북이 힘을 합쳐 복원해 화제가 됐다. 이후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5년까지 매년 영통사 복원 기념법회와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다례재를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 봉행해 왔다.

〈편집자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남북 교류사업을 펼쳐온 대한불교천태종 대전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왼쪽사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 사진전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열었다.

“개성 영통사는 천태종 종조가 머물던 왕실 사찰인데, 화재로 전소돼 묻혔다가 1997년도에 대홍수가 나면서 사적지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후에 당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북쪽의 요구로 복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애국불교를 중요시한 까닭에 우리 천태종이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개성 영통사 복원은 남북 불교계의 우호 교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종교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거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영통사서 분단 후 처음으로 대각국사 추모 합동 다례재를 봉행하며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2005년 11월 31일 개성 영통사 낙성법회서 남북한 스님이 함께 공동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 왼쪽이 무원 스님.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5년 이후 합동 다례재가 중단된 상태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개성일대 성지순례와 영통사의 추가 보수 등 문화교류사업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고 무원 스님은 밝혔다.

‘천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회고전에서는 무원 스님이 2002~2005년 개성의 영통사를 남북합작으로 복원하는 과정과 성지순례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50여 점이 선보였다.

이 사진들중 무원 스님이 첫 번째로 꼽는 감동의 명장면은 무엇일까? 스님은 “그래도 2005년 11월 31일 개성 영통사서 열린 남북한 합동 낙성 법회서 북측 스님과 공동발원문을 낭독하는 장면이죠. 지금도 그 사진을 볼때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2001년 당시 천태종 사회부장이던 무원 스님은 그 이듬해인 2002년 말부터 영통사 복원불사 단장을 맡아 본격 불사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북측과 협력해 기와 46만여 장과 중장비, 마감재 등을 육상으로 수송했으며, 드디어 2005년 11월 31일, 1만 8,000여 평 규모에 29개의 전각을 복원하는 등 50여억원 상당의 대작 불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단계서 가장 난항을 겪은 게 바로 물자 수송 통로였어요. 북측과 이견이 컸죠. 저희는 육로로 물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측에서는 남포항 등 해상으로 보내달라고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육로 수송의 당위성을 앞세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죠. 결국에는 북측에서 받아들이더군요.”

그동안 개성을 포함해 북한을 80번 정도 방문한 무원 스님은 현재의 남북 경색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다.

“영통사 복원은 남북한 평화를 여는데 분명히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영통사 복원으로 성지순례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이뤄졌는데, 영통사 복원이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개성의 육로를 통해 종교시민단체로서 처음으로 갔다는 점에서 뜻깊은 교류가 됐죠. 현재는 남북한 관계가 꽉막힌 지금 모두가 남북 화해를 위해 함께 발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천년의 기억’전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 화해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무원 스님은 지난 2002~2005년 개성의 영통사를 500여 년 만에 남북합작으로 복원한 뒤, 이 지역으로의 성지순례 사업, 남북 공동법회, 관광객 왕래 등 남북교류에 앞장서 왔다.

1979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출가,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 득도했고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부산 삼광사 주지 등을 지냈다. 특히 2009년 국내 처음 다문화 사찰로 유명세를 떨친 명락사 주지로 있으면서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대전·세종·충남 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를 맡고 있는 무원 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한글대장경부터 근대 잡지까지 ‘한눈에’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새단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단(단장 정승석)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KABC)을 새단장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은 전국에 산재된 불교기록문화 유산을 조사, 촬영하고, 원문을 탈초(脫草),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불교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현대화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아카이브 웹서비스시스템 리뉴얼은 지난 7년 동안 구축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리뉴얼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검색엔진을 새로 도입해 통합 검색의 성능과 질을 높였으며,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웹 기반 집성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아카이브 DB의 성능을 고도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색의 편리성과 다양한 검색 결과의 제공이다. 각각의 콘텐츠는 카테고리 별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패싯(facet)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분야, 연도, 기관 등 검색조건별 결과 건수를 알 수 있다.

‘통합대장경’ 카테고리에서는 고려대장경 이미지와 한문 텍스트 및 한글대장경을 모두 경판별로 연동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국역경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뷰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 각 경전의 표점을 수정하고 문단 단위로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목차를 구성했다. 각 콘텐츠의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이 강화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웹 인터페이스의 개선은 가독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전체 화면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세부 콘텐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목록 화면을 표준화시켰다. 또한 KABC의 패밀리사이트인 불교학술원 홈페이지와 인터페이스의 연계성을 높였고,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다.

근대불교잡지 31종 647권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 또한 큰 성과다. 1902년 동양교보 제4호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 〈불교〉 전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조선불교총동맹이 1931년 8월에 창간한 〈불청운동(佛靑運動)〉을 제공하고 있다.

정승석 ABC 사업단장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웹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불교기록문화유산에 어린 향기를 느끼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50집’ 발표

‘팔정도’ 등 총 10곡과 반주 음악도 수록

우리나라 창작 찬불동요의 시대를 열었던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50집’을 발표했다. ‘팔정도’를 비롯해 모두 10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수록한 기념비적인 이번 50집에는 좀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를 비롯해 정유탁, 민선희, 함현상, 최미선, 조순영이 작곡에 참여했으며, 작사에는 덕신스님, 박성희, 황인선, 최미선, 최동호가 참여했다. 노래는 L.M.B.싱어즈, 진희원, 김애경, 손은경 등이 불렀다.

‘풍경소리’는 1996년 1집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과 겨울에 발표돼 왔다.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단일 앨범으로 50집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풍경소리’는 불교계는 물론 국



내 최초이자 유일한 창작 찬불동요 음반으로, 지금까지 ‘풍경소리’를 통해 발표된 창작 찬불동요는 400곡이 넘는다. 이번 앨범 역시 CD와 USB 두 가지로 발표됐다. USB에는 신곡과 함께 풍경소리 연등축제 음악, AR, MR을 모두 담았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다름이 진리 밝힘이니 온갖 꽃 새롭도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衆生諸佛不相侵
山自高兮水自深
萬別千差明此事
鷓鴣啼處百花新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 가지 천 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새롭도다.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진리의 낙을 누린다는 말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산은 스스로 높음이요,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금일(今日)은 경자년(更子年)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이라.

대중(大衆)들이 이렇게 모여서 삼하구순(三夏九旬)동안 산문(山門)을 폐쇄하고 모든 반연(攀緣)을 끊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정진(精進)에만 몰두하는 것은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이다.

중생에게는 숙세(宿世)의 업식(業識)이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고, 번뇌가 파도처럼 쉼 없이 밀려옴이라.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노를 부지런히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멈추면 뒤로 밀려가는 것과 같다. 간단(間斷)없는 정진만이 진취(進就)가 있고 궁극에는 진리의 문에 들어서게 됨이라.

수십 년 결제안거를 빠지지 않고 하였음에도 득력(得力)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를 놀아나서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만약,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이라.

이 공부는 요행(僥倖)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頓發)하고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확철대오(廓撤大悟)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쳐서 마치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이 온 정신을 모아 집중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이라.

이 부처님의 진리는 스님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눈 밝은 선지식(善知識)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아 착실히 수행해 갈 것 같으면, 금생(今生) 한 생에 이 일을 다 마쳐 한가한 무사장부(無事丈夫)가 될 수 있다.

이 최상승법(最上乘法)에서는 승속(僧俗)이 따로 없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형상(形相)을 논하는 법이 아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방거사라는 훌륭한 거사(居士)가 있었다.

하루는 방 거사가 큰 신심과 용기를 내어 석두 선사를 친견하러 가서 예(禮) 삼배(三拜)를 올리고 여쭙기를, 만 가지 진리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어떤 분입니까?하고 아주 고준(高峻)한 일문(一問)을 던졌다.

그러자 석두 선사께서는 묻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거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여기에서 홀연, 방 거사의 마음광명이 열렸다.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사는 석두 선사께 큰 절을 올려 하직인사를 하고는, 그 걸음으로 수백 리 길을 걸어서 마조 선사를 친견하러 갔다.

마조 선사 처소에 이르러 예(禮) 삼배(三拜)를 올리고 종전과 같이 여쭈었다. 만 가지 진리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어떤 분입니까?

그대가 서강수(西江水) 물을 다 마시고 오면 그대를 향해 일러 주리라.

마조 선사의 고준한 이 한 마디에 방 거사의 마음광명이 여지없이 활짝 열렸다. 제불제조(諸佛諸祖)와 동일한 안목(眼目)이 열렸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후로, 집에 돌아와서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家寶)와 재산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흔연히 보시(布施)하였다. 가족은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개울가에 오두막집을 한 칸 지어놓고, 산죽(山竹)을 베어다가 쌀을 이는 조리를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면서 참선수행(參禪修行)에 몰두하였다. 마침내 온 가족이 진리의 눈을 떴다.

하루는 방 거사가, 딸의 진리의 기틀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마디를 던졌다. 일백 가지 풀끝이 다 밝고 밝은 부처님 진리로다.

그러자 딸 영조(靈照)가 즉시 받아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가 누렇게 되도록 수행을 하셨으면서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하셨습니까?하고 아버지에게 호통을 쳤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버릇없다고 하겠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그렇지가 않다. 이 최고의 법(法)을 논하는 데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 거사가 딸을 보고 물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고?

일백 가지 풀끝이 다 밝고 밝은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방 거사가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했느냐며 호통을 쳐놓고는, 자신도 역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고준한 안목이 있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여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여러 대중은 방 거사 일가족을 알겠는가? 방 거사가 말한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한 섬 기름을 펴는 것과 같음이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며, 방 거사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 끝에 불법의 진리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인가?

또,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심이로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인가? 이 세 분의 낙처를 알고 가려낼 줄 안다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와 동행(同行)할 것이다.

만약 산승이, 방 거사 일가족이 한 마디씩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주장자(拄杖子)로 세 분에게 각각 삼십 방(棒)씩 때렸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있어서, 방 거사 일가족이 멋진 법문을 하여 천추만대(千秋萬代)에 불법(佛法)을 빛나게 하였거늘, 스님은 무슨 장처(長處)가 있기에 고인들에게 방망이를 내리느냐?고 물을 것 같으면,

來年更有新條在
惱亂春風卒未休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어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몰록 생사마음 쉬면 곧 대각이니라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釋迦彌勒不相干
只貴革凡成聖事
步步超昇三界境
處處無非華藏界

석가와 미륵이 상간하지 아니하고
다만 범부를 고쳐
성인됨을 귀하게 여김이로다
걸음걸음마다
삼계의 경계에 뛰어 오르니
처처에 화장세계 아님이 없도다.

일대사를 요달하고져 하는 자는 저 본 참공안상에 간절히 간절히 참구해서(欲了一大事者 於本 叅公案上 切切叅詳) 이십사시 중에 한결같이 매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홀로 드러나서(二十四時中 單單不昧 疑團獨露) 점점 아름다운 경계에 들어가리니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서는 취사함을 얻지 못하며(漸入佳境 到此時節 取捨不得) 홀연히 법왕성에 답착해서 일대사를 요달 하리니 간절히 모름지기 힘쓸지어다(忽然踏着 法王城 了達一大事 切須勉之).



木人歌曲石女舞
火中生蓮萬民安
雲散淸空明月照
千年枯木更生花

나무사람이 곡조에 맞춰
노래 부르니 돌여인이 춤을 추고
불 속에 연꽃이 피니
만민이 편안하도다
구름이 흩어진 맑은 허공에
밝은 달이 비추고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도다.

一念頓亡生死心
息心當處卽菩提

한 생각에 몰록
생사의 마음을 쉬어 버리면
마음 쉰 그 자리가 곧 대각이니라.

증애·시비 끊어진 경지서 무생가 정진하길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見色非干色
聞聲不求聲
色聲不礙處
親到法王城

색을 볼 때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구하지 않네
색과 소리에 걸리지 않은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리라

구순안거 동안에 총림대중은 산문 출입을 삼가며 세상의 잡다한 인연을 멀리하고, 대중이 육화로 화합하며 수행자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해 정진합니다.

안거 동안에 화두 참구에 성심을 다하여 화두가 타파되면 성색(聲色)이 끊어진 경지에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색에 끄달리지 않아야 증애와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증애와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야 일체 인연을 바라밀 실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의 수행도량만이 아닌 시끄러운 곳에서도 능히 챙길 수 있는 것이 화두이고 보리심입니다. 역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진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하는 경계마다 숙업에 끄달리지 않으면 모두가 보리심이요, 시비에 끄달리면 모두가 번뇌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성성하게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두입니다. 안거 동안에 모두가 증애와 시비가 끊어진 경지에서 무생가를 부를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與君同步又同行
起坐相將歲月長
渴飮飢飡常對面
不須回首更思量

그대와 함께 걷고 함께 행동하며
서고 앉기를 함께 함에 오랜 세월이 지났도다
목마르면 마시고 주리면 먹으며 항상 함께했으니
머리를 돌려 다시 생각하지 말라

만나는 일마다 생불 친견이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계절이 고요해지고 산천이 안정이 되었다. 결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안거 입방이 결정되고 나니, 아! 내가 하안거의 주인공이네! 산처럼 든든해지고 허공처럼 한가해졌다.

"이 동네 뜨는 태양 소식이 평침하다. 훤출하게 벗어나 신령스럽게 다 안았네. 밀밀이 틈이 없고 밝고 비어 말 붙일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네. 원만십성(圓滿十成)이라 찌꺼기가 없어 꿈결의 인연들이 이로 좇아 다해 소멸이로다. 일러라!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밟아 갈 것인가? 상천월락야장반(霜天月落夜長半) 수공징담조영한(誰共澄潭照影寒). 서리 찬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어 누가 맑은 못, 찬 그림자 함께 비추나."(만공 스님 법어)

자고 일어나면 먼저 와 있는 이 물건, 억 천만 년의 내가 먼저 와 있었네. 태풍이 구만리 파도를 일으켜 자지러지게 번개쳐도 이 놈은 일이 없네. 길길이 말아 엎어쳐 살같이 달려드는 물살이 돌아설 때는 멋이 있어 끝 파도 한 줄기가 전체 바다를 다 살리네. 식이 쉬어져 저절로 드러나는 이 본체, 고불이요 미생전이요 분별전이로다. 보이고 들리는 우주의 법계성이 통틀어 너요, 너라고 하는 이 물건이 저 광활한 세상을 어루만져주네. "이 뭘까" 한 생각이 세상 뿌리에 물을 주고 있네.

세월을 넘어 만고의 이 물건은 본생(本生)이요, 불생(不生)이요, 불멸(不滅)이로다. 굴리다 점점 저절로 되면 수류화개(水流花開)가 되어 언제나 정월 초하루 새 맛이로다. 내 육신법당에 이 뭘까 주불이 확실해지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선불장에 대웅전이 중심이듯이 사대육신에는 "이 뭘까"가 중심이다. 육신법당에 화두 주불이 갖춰지면 지수화풍 사대의 지는 대지의 명당이요, 수는 인당수의 큰 바다요, 화는 뜨거운 태양이요, 풍은 태초의 바람이다. 사대가 갖춰진 내 몸은 불가사의 부처님이요, 백억 달마요, 사랑의 관세음보살이다가도 대웅전이요 와도 대웅전이다. "이 뭘까" 주불이 언제나 역력해서 맑은 바람 뜨거운 불에 세상 역병은 소멸되고 만사는 형통되네.



대웅전 주불 앞에 백명 대중이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뒷바라지는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다. 혼자 사는 산중토굴 생활이 규모는 작아도 밥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밭 매고 물 긷고 내 한 사람 의식주 해결이 혼자 해결하자면 일이 태산 같다. 그러나 큰절에 입방이 되면 다 해결이다. 대중규칙 따라주고 공부만 하면 된다. 큰절 원주 별좌 공양주 채공이 한없이 고맙고, 주지스님이 부처님처럼 고맙다.

누가 나한테 소원을 묻는다면 다음 생에라도 별좌 공양주를 해서 대중 시봉을 제대로 한 번 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요, 원력이다. 생각하면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도 인색하고 박복해서, 복을 먼저 짓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이 된다. 세세생생 보살행의 부처님 전생이 항상 생각이 난다.

大道本來無程道
不知何處向安心

대도는 본래로 길이 없어. 알지 못하겠다! 어느 곳을 향하여 안심할꼬?

큰절 대중 의식주 해결은 일이 많다.

성성이 깨어있는 삶이 나의 집이로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송나라 때 석상초원(石霜礎圓)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백 척의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예상한 것처럼 당나라 때 장사경잠(長沙景岑) 선사는 미리 답변을 남겼습니다.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진(眞)은 얻지 못함이라. 백척간두에서 모름지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시방세계(十方世界)에서 전신(全身)을 드러내리라."

임제종 석상초원 선사는 분양선소(汾陽善昭)의 법을 이었고 문하에 황룡혜남(黃龍慧南)과 양기방회(楊岐方會)를 배출한 대종장(大宗匠)입니다. 임제종의 황룡파와 양기파라는 두 물줄기가 석상문하에서 배출된 것입니다. 장사경잠 선사는 남전보원(南泉普願)의 법을 이었으며 조주(趙州) 스님과 사형사제 관계인 대선장(大禪匠)입니다.

두 선지식의 '백척간두진일보'는 선가에서 오랫동안 회자(膾炙)되었고 지금도 사해(四海)에서 만민(萬民)의 입에 오르내리는 살아있는 화두입니다. 석상의 질문에 대하여 장사경잠 선사는 설사 백척간두에 앉을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진(眞)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앉아만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진짜 대오(大悟)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미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평지로 내려온 사람과 계속 평지에 머물렀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석상 스님은 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한다고 말했겠습니까? 자리(自利)만으로는 이타(利他)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타를 실천할 수 없는 자리(自利)는 공허한 언구(言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백척간두'라고 하니 백 척 길이의 장대 끝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언구에 걸려 바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언구에 걸리면 백척간두는 고사하고 일척간두조차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언구에 걸려 중생 제도는 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제는 언구도 버리고 내 몸에 대한 집착(身見)도 버리고 오직 백척간두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구순(九旬)안거 동안 열심히 정진해서 백척간두에 이르러야 해제하는 날 비로소 시방세계에 온몸을 던지기 위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결제를 못한다면 백척간두가 아니라 일척간두조차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경잠과 어떤 납자의 문답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하겠습니까?" "낭주(朗州)의 산과 풍주(灃州)의 물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해(四海)와 오호(五湖)가 황제의 덕화(德化)속에 있느니라."



낭주의 산과 풍주의 물이라고 한 것은 남을 위해 진흙에 뛰어들고 물을 묻히는 타니대수(拖泥帶水)의 길입니다. 황제의 덕화 속에 있는 사해와 오호는 시방세계입니다. 그 속에 온몸을 나투기 위해 결제동안 정진하고 또 정진할 뿐입니다.

寂寂本故鄕
惺惺是我家

고요하고 고요한 본마음 바탕이
나의 고향이요
성성이 깨어있는 삶이 나의 집이로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시대 앞에 섰던 선지식 그립습니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6월 8일 별세한 선진규 법사
마지막까지 현장 떠나지 않은
재가불자 선생님이자 선배님

생전 조성한 '호미 든 관음상'
'시대 변화' 요구 원력 담겨져

"베풀며 욕먹을 언행 말라"는
선진규 법사 수행수칙 되새겨야

늘 옆에 계셨고, 그래서 내일도 우리 곁에 여전히 서계실 줄 알았다.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한번 뵈러 가야지 하는 생각만 가끔씩 떠올렸다. 그러다 여러 불사(佛事)의 현장에서 뵙게 되면, "자주 가서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소리로 얼버무리곤 했다. 그럴 때면 "내 찾아올 시간 있으면, 게을리 사는 게지"라고 했던 눈에 선한 그 모습!

오랜만에 연구실을 찾아온 선진규 법사의 외손주 병주 군과 함께한 자리서 법사님 타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지만, 또 어찌 보면 출재가를 막론하고 수많은 선지식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법사!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애썼던 재가의 선생님이자 아득한 선배님! 이것이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배웠던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법사님의 이미지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불교계의 재가 사회운동가보다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후원자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86살이셨던 바로 작년까지도 불교사회운동의 일선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던 사회 최일선의 젊은 실천가이셨던 분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마을로 잘 알려진 김해 봉하마을 옆 나지막한 봉화산 산봉우리에는 특이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상 한 분이 봉하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관세음보살은 정병을 들고 있거나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산의 관세음보살상은 왼손에는 정병을 오른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다. 1959년 4월 5일, 법사님의 제안과 당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선후배들의 동참으로 모셔진 보살님이다. 이름도 '호미 든 관음성상'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왜 호미를 들었을까? 호미 든 관음성상을 모신 지 50여 년째에 쓴 선진규 법사님의 자작시 〈울음〉에서 그 심정을 "배고파 보릿고개 넘지 못하는 헐벗은 산야에/ 할 수 없이 우리는 부처님 손에 호미를 들게 하고 울었습니다"라고 토로하신 바 있다. 한국전쟁의 직후, 정치도 사회도 혼란스러웠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야 할 불교계마저도 정화불사로 한 치 앞을 헤아리기 힘들었던 시절, 청년 불자의 심정은 '울음' 아니 '웃음을 주고 싶었던 간절한 울음' 그것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호미 든 관음성상'은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고통의 바다 보릿고개를 숨차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중생들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를 앞섰던 젊은 불자가 호기롭게 내보인 원력의 표현이었다. 벌써 60여 년, 그 젊은 불자는 여전히 젊은 불자로 우리 머리에 남겨져 있는데, 속절없이 우리네 곁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네 곁을 떠나는 지금에도 그를 여전히 시대에 앞서 있는 선지식으로 우리 곁에 남겨두고 싶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60여 년을 불국토의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청년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 간절한 원력의 실천자이자 동행자였던 그 분이 우리에게 짤막한 회향사를 남겼다. 정토원 사부대중의 수행수칙과 수행목표라는 이름으로. 그가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던 현생국토의 꿈을 담은 수행수칙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지면으로나마 청년 선진규 법사의 정신을 기린다. 정토원 사부대중에 남기신 수행수칙이지만, 우리 한국의 청년이어야 할 불자들에게 새기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1. 내 자신이 나에게 미안한 짓 하지 말자.
2. 남에게 욕먹을 언행 하지 말자.
3. 한없이 능력껏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재미있는 스토리로 설법을

지거(智炬) 스님의 〈보림전〉 권8에 보면 혜가(慧可)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은 '설중단비(雪中斷臂)의 일화'가 나온다.

혜가(487~593)대사는 위진남북조시대 북위(北魏)의 스님으로 달마대사를 찾아간 때는 폭설이 내려 소림사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그가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혜가는 진리를 구하고, 스승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차고 있던 단도를 뽑아 왼쪽 팔뚝을 끊어 달마대사에게 바쳤다. 이것이 '혜가의 구법단비(求法斷臂)'라는 고사이다.

혜가(慧可)는 "저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라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달마대사는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 오너라.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마" 라고 하자, 혜가는 "제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달마대사는 "그렇다.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은 실체가 없는 너의 망상이다. 본래 불안한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다. 부질없이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혜가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고, 인식의 주체로서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유명한 선가의 안심(安心)법문이고, 혜가는 달마대사의 뒤를 이어 선종의 2대조사가 되었다.

리잉의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에서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과 교수는 "당신이 부유한 것을 생각하면 부유해질 것이고, 박식하길 원하면 박식해질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일을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선종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한 명제와 같은 말이다. 불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깨달은 진리가 "마음이 망상을 일으키면 본래 없는 귀신이 대낮에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유희(遊戱)적이고, 설명하는 동물이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존재는 인간 밖에 없다.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뜻한다.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 대중 스피치나 기업의 광고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부처님의 생애나 경전의 내용, 선사들의 구도와 깨달음의 모습을 이야기로 소설처럼 편집하여 설법한다면 드라마를 보듯이 쉽고 흥미진진하게 공부할 수 있다.

특히나 선사들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투철한 수도와 깨달음의 내용은 드라마틱하다. 선화두 공안의 내용은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극도로 축약되고 상징화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큰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의 역사와 고승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전등록〉이나 〈삼국유사〉와 인생의 역전과 승리의 스토리를 담은 사마천의 〈사기〉는 스토리텔링 설법의 좋은 설법자료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北신계사 향한 혜해 스님의 그리움

조계종 비구니 원로 혜해 스님의 입적 소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대중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혜해 스님의 인생이 곧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다.

1944년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서 출가한 스님은 한반도 분단의 산 증인이었다. 해방 이후 남하해 한평생 용맹정진하며 승·재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마음속 한 편에는 언제나 금강산 신계사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다. 신계사는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04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힘을 모아 신계사 복원 불사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혜해 스님은 복원이 진행된 4년간 고령에도 십여 차례 방북해 감동하고 또 환희했다.

생전 혜해 스님은 "금강산에서 출가했으니 금강산에서 이 생을 마치겠다"는 원력을 밝혔다. 그러나 스님의 간절한 뜻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10월 신계사 낙성식 이후 단 한번도 금강산를 밟지 못한 채 원적에 들었다. "금강산에 가서 신계사도 보고 법기암도 둘러보며 노닐다 가겠다"는 말에 금강산을 향한 스님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스님은 "유골을 금강산에 뿌려달라"고 유언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막막한 일이다.

스님의 원력은 사리 30여 과로 남았다. 사리는 주석처인 경주 흥륜사 법기암에 안치될 예정이지만, 유지에 따라 일부는 북한 신계사 법기암에 안치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남과 북에 나눠 안치될 스님의 사리는 남북불교계의 뿌리가 하나이며 남북간 동질감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것이다. 혜해 스님의 삶과 드높은 원력이 얼어붙은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올 씨앗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포교사단 20주년을 축하하며

6월 10일은 제7회 포교사의날이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포교사단 출범 제20주년 및 포교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포교사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일꾼으로 새로운 원력을 모았다.

현재 포교사단은 한국불교 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다양한 전법현장에서의 포교사들의 열정과 종단 행사와 법회에서의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모습은 포교사단의 역할을 보여준다. 포교 뿐만 아니라 수행분야까지도 5대 수행법을 전파하는 새로운 수행전법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포교사단이 20년의 어떻게보면 짧은 역사에도 한국불교의 중추로 자리한 것은 포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교사단은 앞으로 출가자 감소에 따른 승단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교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법사로서의 역할도 부여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사단은 전문교육 강화와 수행가풍 확립 등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포교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포교사 고령화와 포교사 지원자 감소의 문제, 별다른 지원없이 원력에만 의존하여 활동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사찰 스님, 신도들과의 활동영역을 둔 불협화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포교사들의 역할이 많아지고 위상이 강화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로,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0~6/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운그림	불교신문사
3	요가디피카 (아행가요가비)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8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 보라	어정현	운주사
9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10	인물로 보는 한국 선 사상사 : 한권으로 읽는 한국 선의 역사	정운	운주사

책세상

“자비 실천이 바로 행복 일구는 비결”



마음의 향기

혜광청운 지음/인북스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운 스님은 30년 넘게 광운불교대학을 운영했으며, BBS 불교방송 생활법문, 수요법회와 BTN(불교TV) 정기법회 등을 맡아 전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BBS TV 〈청운스님의 천수천안〉은 천수경을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어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등서도 불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 운봉산 광운사 주지로 있다.

BBS불교방송 생활법문 프로 방송
울림되는 법문과 강연 100편 소개
지금 여기서 행복 일구는 생활지혜

경전과 선어록 인용해 안목 열어줘
이 책의 일관된 주제는 ‘행복한 삶’
“불행, 우리 삶의 일부로 인정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안될 때는 화를 내게 되는데, 이 못된 성질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지요. 그러기에 영국의 시버가 자기 분노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고삐 없이 야생마를 타는 셈이라고 했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되고, 그때 상대방이 있다면 시비가 일어나 불붙은 장작더미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출요경〉에서는 달리는 수레를 붙잡듯 분노를 제어하면,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게 됩니다.”

동서양의 성인 어록과 경전 말씀을 넘나들며,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기 설법을 하는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이 최근에 책을 펴냈다.

이번 책은 BBS 불교방송 ‘청운 스님의 생활법문’ 시간을 통해 방송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회와 대중 강연을 통해 울림이 큰 법문 100편을 묶었다. 책 속에는 불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수많은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함께 지금 바로 여기서 향기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

책 속 법문들은 저자인 청운 스님이 평소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쌓아 올린 무상의 경계를 바탕으로 한 생활 법문들이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책 속 내용들이 모두 구어체로 기록돼 있어 현장에서 직접 법문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청운 스님은 평소 방송 매체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 사고 방식과 철학으로 명징하게 풀어내 전하며,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경전과 선어록을 인용해 참다운 안목을 열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펴낸 법어집 〈마음의 향기〉에도 부처님의 금구직설(金口直說)인 경전 가르침과 더불어 오랜 세월 수행과 정진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선지식들의 일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는 동서양의 삶의 지혜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청운 스님 특유의 비유적 화법으로 펼쳐낸다.

책은 제 1부 수행의 향기 28편, 2부 지혜의 향기 28편, 3부 선지식의 향기 16편, 4부 인생의 향기 28편 등 모두 100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법어집의 일관된 주제는 ‘행복한 삶’의 추구이다.

저자 청운 스님은 책머리에서 “이번 책은 BBS 불교방송서 3년 동안 방송하며 전국의 불자님들과 함께했던 법문들을 모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법문하는 내내 매일 새벽 청정한 기도로 모든 분이 행복하길 발원 드렸습니다”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스님은 “모든 생명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모든 이들의 행복, 평화, 안락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신 목적이고 까닭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운 스님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불자들에게 요구한다. 건강, 명예, 사랑, 재물, 권력,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려면 불행도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복이나 불행은 따로 떨어져 다니는 둘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있는 것이며, 행복도 불행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행복만 기다리는 것은 욕심입니다. 생과 사를 하나로 보듯이 고통도 즐거움도 즐길 대상이기에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삶을 즐기며 인연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느 사이엔가 내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제 1부 수행의 향기는 주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윤회와 연기 그리고 자비의 정신을 일깨우며, 일상 속에서 불교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청운 스님이 강조하는 행복의 지혜 중 하나는 자비의 실천이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자비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베푸는 자비 실천이 바로 자신의 행복을 일구는 비결도 된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 시대에 불교가 우리 사회를 정토로 가꿀 수 있는 종교로 우뚝 서기 위해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제 2부 지혜의 향기는 행복의 길로 가려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함을 일깨우는 경책의 법문이 주를 이룬다. 특히 탐욕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은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금과옥조라 할 것이다.

제 3부 선지식의 향기에서는 동산 선사를 비롯한 중국 옛 선사를 비롯해 근대 선승인 경허 선사 일화에 이르기까지 참된 수행으로 깨침을 이룩한 선사들이 후세에 전하는 참된 삶의 교훈과 지혜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명예와 거울은 사소한 입김으로도 흐려진다’는 격언을 들어 세속적 명리를 경계하며 걸림 없이 살아온 고승대덕과 선각자들의 행적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마지막 제 4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일상 생활에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당부하는 법문들이다. 효는 모든 선행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도록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무엇보다 큰 덕목으로 내세우고, 인과 연의 업설, 선조들에 대한 의례 등의 설명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법문이 펼쳐진다.

단일 주제 형식의 법문들을 간추려 놓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지 않더라도 책상 위나 머리맡에 두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백과사전처럼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맞는 주제별로 이따금씩 꺼내 읽어도 좋은 책이다. 저자 청운 스님의 깊이 있고 폭넓은 인생 처방전이 가득 들어 있어 오래 사귄 벗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한 위안을 준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네 마음이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의 일에 나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고, 그것은 곧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고, 그것은 또 나만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심입니다.”〈79p〉

“남이 성낸 것을 알고 정념으로써 자신을 고요하게 하는 사람은 훌륭하게 자기를 이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마치 좋은 의사와 같은 사람이 되느니라.”〈120p〉

“충고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충고가 필요한 사람들도 내게 충고를 하는 사람을 자연히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칭찬은 달지만 독이 되기 쉽고, 충고는 한없이 쓰지만 약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칭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넘어가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262p〉

성주사, 100만 시민 인문학 세계 초대

6월 7일 불모산 인문학 강의에 열띤 호응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
200여 명 참여해 역사 청강
9월까지 매주 日 10시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는 6월 7일 '천년의 불모산 성주사100만 창원시민을 만나다' 인문학 강의를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창원 성주사가 불교 문화재를 설명하는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불교세계관을 제시하고 사찰문화 곳곳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6월 7일 '천년의 불모산 성주사 100만 창원시민을 만나다' 인문학 강의를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성주사 인문학 강의는 불교문화에 숨어 있는 역사와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채롭게 엮어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심도 깊은 강의로 마련됐다.

참가한 창원 시민들과 불자 200여 명은 강의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화답하며 귀를 기울였다.

첫 강의 현장에서는 주지 법안 스님이 성주사 창건 배경을 짚어보고 역사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역사 속 민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안식처가 된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성주사는 왜구의 침략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며 활동한 무염 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에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중창해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곰절로 유명한 설화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주사의 모습을 소개했다.

법안 스님은 "불모산에 곰이 살았는데 배가 고파 절에 내려 왔었다. 성주사 스님들이 좌선삼매에 들어 수행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고픔을 잊고 스님들처럼 수행을 했다. 그 후 곰은 다음 생애 사람으로 태어나 부목으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강의는 성주사의 창건부터 임진왜란 후 중창과 가야불교와의 관계성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성주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성주사에는 현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29호), 극락세계가 그려진 감로도(보물 제1732호), 몽산화상육도보설(보물 제1737호), 대웅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등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성주사 인문학 강의는 매월 첫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9월까지 이어진다.

7월은 유근자 동국대 교수가 '정토의 실현, 성주사 대웅전 삼세불상' 을 주제로 17세기 성주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 및 1729년 개금 · 중수 기록을 통한 관찰사 박문수와 성주사의 관계를 설명한다. 8월에는 정진희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조선의 풍속화로 들어가다, 성주사 감로도 염라대왕과의 대화' 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정 박사는 성주사 감로도가 조성된 18세기 풍속화와 감로도에 담긴 불교의 세계 및 조선후기 명부세계와 관련된 성주사 지장전 존상에 관한 내용을 풀어 갈 예정이다.

9월 강의는 김봉렬 문화재 위원장이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일상에서의 문학적 삶' 을 주제로 성주사에 조성된 국가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숨어 있는 문학적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성주사는 인문학 강의 기간에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한다. 인문학 체험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내용은 문화유산 동영상 시청, 목판 인쇄 체험, 불교 문화상품 만들기, 성주사 지장전 답사 등이다.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복원 박차

3차년도 14매 복원사업 시작
2021년 2월까지 복원 예정


고창 선운사 스님들이 〈석씨원류〉 목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 복원작업 중 3차년도 14매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석씨원류〉 중 망실 및 파손된 목판 52매 중 38매를 복원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14매를 2021년 2월까지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선운사 본 〈석씨원류〉는 1486년(성종 17)에 왕명으로 새긴 것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사명 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구해온 〈석씨원류〉 1질을 모본으로 하여 1648년(인조 26)에 최서용(崔瑞龍) · 해운법사(海運法師) 등에 의해 복간됐다. 목판에 '兜率山禪雲寺開版(도솔산선운사개판)' 이라는 간기가 있으며, 발문의 '崇禎後戊子五月日 兜率山人 玄益 跋(숭정후무자오월일 도솔산인 현익 발)' 내용을 통해서 선운사에서 복간된 목판임을 알 수 있다.

이 목판은 원래 103매 409판이었으나 모두 망실되고 현재는 62매 124판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관 관리되고 있다. 각판의 앞뒷면에 모두 판각돼 있는데 하단에는 〈석씨원류〉 본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그 내용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 판각의 크기는 가로 39cm, 세로 29.5cm이다. 이 〈석씨원류〉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 중 걸작으로 꼽히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료다.

정식명칭이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原流應化事蹟)〉인 〈석씨원류〉는 중국 명(明)나라의 보성(寶性)이 석가의 행적과 불법의 계승에 관해 서술한 〈석가여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과 불교가 중국에 수용된 이후 원(元)에 이르기까지 불교사를 정리한 속편을 엮어 간행한 것이다. 총 상하 4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권(1~2권)은 석가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을, 하권(3~4권)은 석가 이후 달마를 비롯한 고승들의 일화를 삽화와 함께 수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씨원류〉 목판은 선운사 본(禪雲寺本)과 불암사 본(佛庵寺本) 두 가지 판본이 전하고 있다. 불암사와 선운사에서 간행된 〈석씨원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편찬체제는 전혀 다르다. 불암사 본은 앞쪽에 그림을 싣고 뒤쪽에 본문을 둔 전도후문(前圖後文) 형식이며, 선운사 본은 상단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 상도하문(上圖下文)형식이다. 두 판본 모두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판본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중요한 문화재이다. 불암사 목판은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59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기로운문화동행, 동명대 기금 후원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6월 10일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 동명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6월 10일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총 1000만원이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청량사 주지), 청량사 자오 스님, 정홍섭 총장, 정원기 향기로운문화동행 후원회장, 이교탁 신도회장, 박남규 동명대 교육혁신본부 부총장, 박병준 사무처장, 장재진 학생처장이 참석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학교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안사, 광주 북구 희망김밥 전달


광주 북구지역 아이이들에게 희망김밥이 전달됐다. 광주 정안사(주지 동초)는 6월 11일 (사)자비신행회에서 북구지역 아동센터 55곳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힘내라 우리 아이들!, 정안사에서 보내는 희망김밥' 이란 주제로 마련한 김밥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1,000명분 '희망김밥' 에는 김밥 2줄과 음료수, 바나나, 귤, 음료수 등이 포함됐다.

동초 스님은 "등교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감염에 대한 우려속에 생활하고 있어 '힘내라' 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달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법륜 스님 초청 화엄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정토회 법륜 스님을 초청해 화엄법회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즉문즉설 화엄법회' 제목으로, 6월 10일 화엄원에서 개최된 법회에서 법륜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해탈의 세계에 가는 것이며, 해탈은 모든 고통이 해결된 상태를 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의해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회에는 법륜 스님, 덕문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을 비롯한 학인스님과 신도들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을 통해 '코로나19, 출가, 6.10민주화운동' 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대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불청 부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 모집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사찰문화 해설사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7월~10월 2,4째주 수요일 오후 7시 서면 영광문화원 3층에서 진행된다.

양성 과정은 △사찰해설의 방법론적 이해(7월 8일) △불교 사상과 사찰문화 이해 (7월 22일) △불교 석조 문화재 이해 (8월 12일) △ 불교 회화 문화재 이해 (8월 26일) △ 사찰답사 (9월 5일) △ 사찰 구조물의 이해 (9월 9일) △사찰답사 (9월 20일) △전각과 본존불의 이해 (9월 23일) △목조 건축물의 이해 (10월 14일) △사찰답사 (10월 18일)이다. 양성과정은 현장실습 및 템플스테이로 마무리된다. 현장실습과 템플스테이는 1박 2일로 진행되며 일정은 10월 31일~11월 1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아미타여래 광명이 중생 비추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⑫ 아미타내영도

범부가 아미타여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을 〈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佛經)〉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관경십육관변상도〉를 지난 연재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은 알게 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해진다. 먼저, 5세기 강량야사(畺良耶舍)가 한역한 〈불설관무량수경〉을 살펴보자.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9품(品)으로 태어나느니라. 상품상생(上品上生)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세 가지 마음을 내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지성스러운 마음(至誠心)이고, 둘째는 깊은 마음(深心)이며, 셋째는 회향하여 발원하는 마음(廻向發源心)이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국토에 태어나느니라.

또 세 종류의 중생이 왕생하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자심(慈心)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춘 사람이며, 둘째는 〈대승방등경전(大乘方等經典)〉을 독송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육념(六念)을 수행하고 회향하여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사람이니라.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 내지 이레 동안 하면 곧 왕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저 국토에 태어날 때, 용맹하게 정진한 까닭에 아미타여래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수히 많은 화신불, 백천(百千) 비구와 성문 대중, 한량없이 많은 모든 천인(天人)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칠보 궁전에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금강대(金剛臺)를 가지고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수행자 앞에 이르면,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놓아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여러 보살들과 손을 내밀어 영접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무수히 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찬탄하며 그 마음을 격려하시느니라. 수행자가 이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 이미 자신이 금강대에 앉아 날아가는 모습을 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 뒤를 따라 잠깐 사이에 저 극락국토에 태어나느니라."

위 경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마음을 지닌 세 종류의 중생이 하루 혹은 7일 동안 공덕을 쌓으면 아미타여래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극락에 다시 태어날 왕생자(往生者)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한다. 그리고 아미타여래가 광명으로 왕생자를 비추면 관세음보살이 가져오는 금강대에 앉아 날아서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다. 아미타여래의 빛이 왕생자의 몸을 비추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흔히 금강좌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영화 '스타트랙'의 공간이동 장면이 연상이 될 정도로 생소하다. 어떻게 천



하라호토에서 출토된 '아미타삼존내영도'로 서하 시기 작품이다. 〈불설관무량수경〉을 도상화했다.

'불설관무량수경'을 도상화한 내영도
관음 · 대세지 거느리고 왕생자 맞아
아미타여래 광명으로 중생들의 왕생
고려 · 서하 불화 연관성 확인 '눈길'

오백년 전의 사람들은 현대인의 상상력을 능가하는 이런 순간이동을 생각해내었을까 놀랍다. 더하여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그림을 본다면 그 사실적인 묘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아미타여래가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는 불화를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라고 한다. 아미타여래만 묘사된 경우 '아미타독존내영도', 아미타여래와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혹은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표현되는 '아미타삼존내영도', 아미타여래와 여덟 보살인 관자재보살 · 자씨보살 · 허공장보살 · 보현보살 · 금강수보살 · 만수실리보살 · 제개장보살 · 지장보살을 도해한 '아미타팔대보살내영도'로 구분한다. '아미타내영도'는 구도적으로 일반적인 설법도와 달리 각 존상이 측면의 입상일 뿐만 아니라, 마치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서 이동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오른쪽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 후기에 그려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내영도'는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 252년)〉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닌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 역시 아미타내영도의 구도적 특징과 같이 본존과 협시보살이 비스듬히 서 있는 측면상이다. 관음보살은 본존보다 한 발 앞에 나와 왕생자를 향해 몸을 굽혀 연꽃 대좌 모양의 금강좌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그리고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오른손을 뻗어 왕생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취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영도'. 〈불설관무량수경〉의 관음 · 대세지 보살을 협시하지 않고 관음 · 지장보살이 협시인 것이 특징이다.

하고 있으며, 이마의 계주(髻珠)에서 황색의 빛이 흘러나와 왕생자를 비추고 있다. 아미타여래의 오른쪽 지장보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 손바닥에 투명한 유리 보주를 올려놓고 있다. 이 그림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왕생자는 아미타여래의 빛에 감싸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어서 아미타여래를 바라보고 있다. 경전에서 언급하였듯이 왕생자가 곧 손가락을 튕길 정도의 짧은 순간에 극락으로 가는 강력한 암시가 느껴진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아미타삼존내영도'와 관련해서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된 서하(西夏, 1038~1227)의 하라호토(Khara Khoto, 黑水城)에서 출토된 '아미타삼존내영도'가 주목된다. 서하의 '아미타삼존내영도'를 살펴보면 화면의 좌측을 향해서 삼존이 몸을 비스듬히 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구도적 특징이 리움 소장품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아미타여래 보다 한 발 앞으로 나와서 금강좌를 들고 몸을 숙여 왕생자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아미타여래의 백호에서 빛이 곡선으로 방사되어 왕생자를 비추는데, 빛줄기 속에 왕생자의 혼이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또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협시가 리움 소장품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인 반면에 서하의 작품은 소의경전의 내용대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리움 소장본과 서하본은 왕생자의 중복표현과 협시보살이 지장보살이 아닌 대세지보살이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도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고려불화와 서하불화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우연일 뿐일까?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음보살이 아미타여래보다 한 발 앞서 나와서 왕생자를 향해 허리를 숙여 금강좌를 들고 있는 도상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서하의 '아미타삼존내영도'와 거의 동일한 도상의 판화 3점이 하라호토에서 출토되어 현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도상의 아미타내영도가 대량으로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미타내영도의 소의 경전인 〈불설관무량수경〉이 중앙아시아에서 엮어진 경전일 가능성이 높아, 도상 역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넷째, 서하가 위치한 지역이 감숙성(甘肅省)의 하서회랑(河西回廊)과 섬서성(陝西省)에 걸쳐있어 당시의 중요한 교역지였다는 점에서 고려와의 왕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섯째, 일찍부터 불교를 국교화한 서하의 왕들은 다양한 불교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어서, 북송을 통한 다양한 경전과 판본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송을 통한 고려와 서하의 교류가 가능했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고려에 서하의 아미타삼존내영도가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아미타삼존내영도를 통해서 불교미술의 전파력과 고려불화가 얼마나 국제적이고 시대를 뛰어넘는 사고와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단편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절대 진리란 없다, '신앙'조차도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⑫ 신념의 연기법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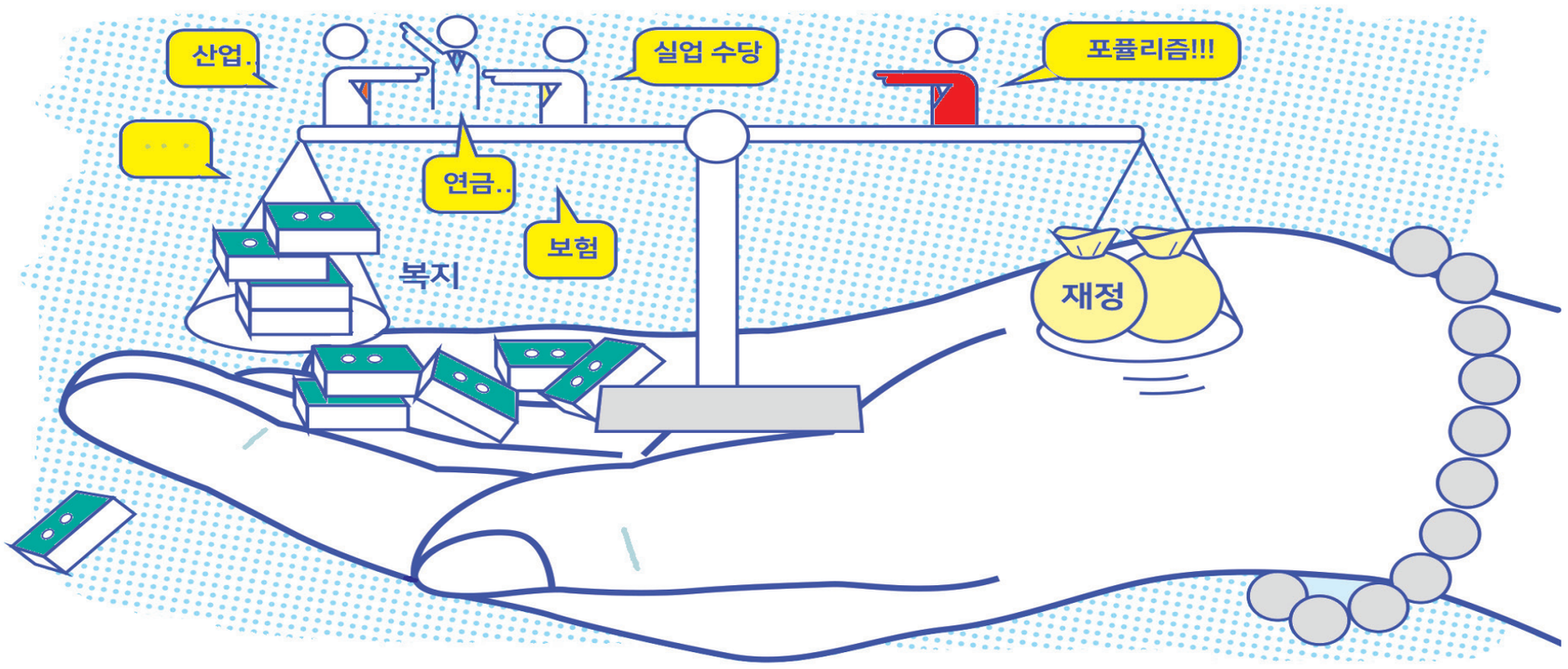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인류 역사상 누가 가장 천재일까? 물론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1위에 선정될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석사 학위도 없고 석사 학위가 없으니 물론 박사 학위도 없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유명하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취리히 공대에 재수해서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물리학 연구를 하며 논문을 썼다. 처음에는 논문을 인정받지 못하여 기고조차 어려웠지만 어려움 끝에 겨우 인정받고 급기야 세상을 뒤흔든다.

천재 중의 천재 아인슈타인과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 중 누가 물리학 지식이 더 뛰어날까라는 질문이 있다. 답은 뜻밖에도 박사과정 학생이다. 박사과정 학생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기존 물리학자들의 이론 중 오류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오류를 몰랐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 무엇이 오류인가를 밝혔다. 우리는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오류라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오류가 있다니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의 세계는 뉴턴의 세계였다. 뉴턴 역시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세계 지성사를 흔든 인물이었다. 뉴턴의 이론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는 세상을 설명하는 오류 없는 법칙처럼 간주되었다. 뉴턴의 이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들은 역사가 낳은 불세출의 천재들이다. 비록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은 뉴턴의 오류와 아인슈타인의 오류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천재성에 비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절대진리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진리를 발견한다' 는 표현을 쓴다. 진리라는 게 절대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우리가 찾아서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광산에서 광부가 보석을 찾듯이 과학자가 진리를 찾아내서 우리 앞에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리학의 세계에서조차 절대진리란 없다. 과학철학이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밝혀낸 사실은 절대진리란 없고 '항상 수정될 수 있는 이론' 만이 존재할 뿐이다. 확률적으로 가설검증을 통과한 이론은 언제든지 다시 수정될 운명을 안고 있다.

수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평행하는 두 직선은 만나지 않아야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주에 가면 이러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틀리다고 하니 절대진리가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착각이다.

파란색 돌은 빛을 받아서 파란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돌의 고유한 성질이 파란색이라고 생각한다. 돌의 표면에 빨간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액체를 칠하면 빨간색으로 보인다. 인간은 무엇이든 지금 보이는 사물과 현상에 절대적 성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집착한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공룡은 커다란 몸집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고 생물학 교과서에 쓰여 있었다. 지금 나이든 세대는 모두 그렇게 배웠고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룡은 지구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다는 이론이 가장 최근 이론이다. 운석이 지구에 대재앙을 가져오는 바람에 공룡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 역시 언제 수정될지 모른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사회과학의 세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없다. 뉴턴의 오류를 수정한 아인슈타인을 틀렸다고 말하는 현대 물리학자는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양자역학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현대 물리학자는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어떤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정치현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도 절대진리란 없다.

진리 인식된 물리법칙
세대 거듭하며 변화해
신앙 세계도 변화해 가
연기법 속 여실지견을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절대진리란 없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임시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덧없다. 따라서 무상하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목을 매고 매달려야 하는 절대진리란 없다. 항상 변하는 임시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부처님은 잘못된 계에 집착하는 것과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 경전에 보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신다. 절대진리가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견해이지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정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절대진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으며 나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 모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 받아서는 안 된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세상의 악을 초래하는 원흉이라고 확신했기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책의 세계에서는 항상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는 맞았던 해법이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는 그저 참고만 될 뿐인데 절대 절명의 해법으로 생각하고 매달린다면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산업단지 개발예산을 증액할 것인지는 주관적 판단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해도 어떤 학자는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학자는 산업단지 개발예산을 증액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누가 맞고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학자도 없다. 두 편으로 나뉘어서 논쟁하다가 많은 사람을 설득시킨 측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민주국가이다.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선택하는 정책이 절대진리이다.

경제대공황이 끝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경제대공황을 종료시킨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첨예하게 나뉜다. 복지예산과 산업단지 개발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복지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만약 복지예산을 증액한 뒤에 GDP가 증가했다고 하자. 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한 측은 복지예산의 증액이 효과를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측은 복지예산의 증액이 아닌 다른 요인을 지목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신념을 가지고 목표에 매진하는 사람을 칭송한다. 하지만 불교교리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람은 아주 골치아프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자칫하면 신념을 신주처럼 받들고 목표에 목을 매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의견에 적대적이 되기도 한다.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하는데 처음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신념의 화신으로 착각할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다.

절대진리가 없는 연기법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끝내 버리지 않고 지켜야할 소중한 규칙들이 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나에게 너의 요소가 있고 너에게 나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 선을 긋고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세상의 요소가 있고 세상에는 나의 요소가 있다. 나에겐 한국이라는 세상이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에는 한민족이라는 요소, 그리고 나와 너라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남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법칙은 저절로 도출된다.

부처님의 계율은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켜야 할 소중한 법칙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진리와는 차원이 다른 윤리 규범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독재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훼손할 때 우리는 분연히 항거해야 한다.

절대진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부질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요인과 조건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절대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인, 조건, 정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이 필요하다.

해탈하면 어떤 징표를 볼 수 있을까? 경전을 보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불교 수행자가 정치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깨달음에서 한참 멀리 있는 것이다. 정치현상을 여실지견할 수 있어야 불교의 지혜가 세상을 비로소 비춰줄 수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공안참구 체계를 세우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⑫ 원오극근 선사



원오극근 선사의 묘. 쓰촨성 성도 소각사 옆인 동물원 내에 모셔져 있다. 원래 동물원도 소각사 도량이었으나 도량이 축소돼 현재 동물원으로 사용된다.

발밑을 살피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들어가는 계단에 '조고각하'가 새겨져 있다. 오를 때마다 그 글귀를 새겨본다. 이 글귀를 처음 언급한 선사는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다. 극근은 앞의 법연 원고에서 법연의 세 제자인 법연삼걸(法演三傑) 가운데 한 분이다. 오조 법연은 세 제자들과 함께 출타했다가 밤늦게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초롱불이 꺼져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법연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각자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아라."

스승의 질문에 당황한 두 제자는 어물거리며 답변을 했고, 마지막으로 극근이 대답했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발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감각기관인 6근(눈·귀·코·혀·몸·생각)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6근을 조종하는 존재,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생길에 이것만 잘 다스려도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극근 활동하던 당시 상황

원오극근과 대혜종고가 활동하던 국제 정세를 보자. 중국 내륙은 907년에 당나라가 망한 후 960년까지 오대십국이 일어나 50여 년간 혼란이 지속되다 송나라(北宋)가 건국된다. 거란은 907년에 건국되어 947년 요나라로 국호를 개칭했다. 만주에서는 여진족(만주족)이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훗날 금나라). 당연히 11세기 중반~12세기 중반은 거란과 여진족 등 이민족의 침탈과 내정의 실패로 송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왕안석(1021~1086)이 송나라의 위기를 모면코자 신법을 내세웠으나 구당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이후 진전이 없이 신당과 구당 세력의 싸움이 거듭되었다. 이런 때 불교는 국가 권력의 보호 아래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한편 불교는 물론 당대부터 선이 강남에서 발전되어온 데다 점차 이때부터 향저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불교 종파는 선·정토·천태가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 이때 사천 출신 고위 관료(장상영·소식 등)들의 귀의를 받아 극근이 속한 양기파의 선이 강남에서 중심으로 떠오른다.

극근의 행적

원오극근은 쓰촨성 성도에서 태어났다.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사찰에 놀러갔다가 불교와 인연되어 묘적원에서 출가하였다. 처음에 〈능엄경〉 등 경론을 공부하다가 중병을 크게 앓은 뒤 해탈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자각하고 사교입선한다. 극근은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녔는데, 옥천승호(1012~1092)·대위모철(?~1095)·황룡조심(1025~1100)·동림상총(1025~1091) 등 여러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유승 문하를 나와 극근은 태평산(太平山)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 문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연은 제자에게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켰다. 간혹 극근이 법에 대해 물으면, 스승 법연은 몽둥이로 때리기가 일쑤였다. 참다못한 극근은 결국 스승을 하직하고 나와서는 10년 가량 병을 앓으며 고생하였다. 힘들었던 10년간의 병고와 고생이 결국 자신을 위한 방편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스승 법연에게 돌아갔다. 그 깨닫게 된 기연이 흥미롭다.

법연의 옛 친구 진 씨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쓰촨성으로 가는 도중 태평산에 들렀다. 법연은 친구에게 다음의 소염시(小艷詩)를 들려주었다.

한 폭의 아리따운 모습 그려내지 못하는데/ 골방 깊은 곳에서 사모의 정에 애가 타네./ 소옥을 자주 부르지만, 소옥에게는 일이 없네./ 단지 낭군에게 제 목소리 알리기 위한 소리일 뿐. (一段風光畵不成 洞房深處陳愁情 頻呼小玉元無事 只要檀郎認得聲)

이 시는 당나라 현종이 총애하던 애첩 양귀비를 소재로 한다. 양귀비는 안녹산과 정을 나누는 사이였다. 안녹산이 그리워도 불러올 상황이 아닌지라, 몸종 소옥이를 불러 담 밖에 있는 안녹산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다. 여기서 '소옥아! 소옥아' 하고 부를 때, 낭군이 알아듣는 것은 '소옥'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즉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관념을 따르지 말고, 말

저서〈원오심요〉서 화두선 강조
대혜종고 '간화선' 정립에 도움
임제종 중흥 위해 선체계 세워
'다선일미'사상 저변화 이끌어

의 근원을 파악하라는 법연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진씨는 깨닫지 못했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극근이 듣고 깨달았던 것이다. 진 씨가 물러나고 극근이 법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소염의 시를 들려줄 때, 친구 분께서 선의 참뜻을 알았을까요?"

"그 사람은 다만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면 그가 낭군 부르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법연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극근이 스승의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난간에 수탉 한 마리가 날개를 치며 길게 우는 소리를 내었다. 극근은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40세인 1102년, 극근은 자신의 고향인 쓰촨성 성도 소각사(昭覺寺)에 머물렀다. 당시 정치인 장상영(1043~1122)과 장준(1086~1154)의 귀의를 받았다.

62세, 1124년에 극근은 하남성 개봉 천녕 만수사(萬壽寺)에 주석하였다. 이후 호남성 협산사 영천선원과 도림사 등지에 머물렀다. 영천선원에서 극근은 제자를 지도하면서 〈벽암록〉을 완성하였다(1125년). 극근이 머물던 당우 '벽암(碧巖)'이라는 편액을 따서 〈벽암록〉이라고 하였다. 만년에 극근은 자신의 고향인 성도 소각사에 머물다 세수 73세, 법랍 55세로 입적하였다. 남송의 고종이 진각선사(眞覺禪師)라는 호를 내렸다. 저서에 〈원오심요(圓悟心要)〉가 있다. 극근이 머무는 곳에는 늘 1천여 명의 제자와 재가자들이 있었는데, 대표 제자로는 대혜종고(1089~1163)와 호구소융(1077~1136)이 있다.

〈원오심요〉의 사상과 특징

〈원오심요〉의 원명은 〈불과원오진각선사심요〉로서 상·하권 합쳐 143편의 글이 실려 있다. 법을 묻는 제자들과 사대부들과의 편지글 서간문이다. 당시 재가자들의 선이 유행하여 이 가운데 사대부들과 나눈 편지가 42편이다. 극근은 선자의 본분 자세나 선지식으로서 갖춰야할 자세 등을 편지 받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이 심요에서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에게 화두 참선을 권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공안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무자 참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극근은 조사들의 공안과 기연 언구들을 제시해주고, 이를 지표 삼아 구경(究竟)을 직하(直下)에 깨닫도록 강조하였다. 이 책은 대혜가 간화선이 성립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주었다. 극근이 이 책자를 통해 임제종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공안참구에 조직적인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몇 편의 서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신 시자에게 주는 글

움직임과 고요함, 가고 옴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자유자재하도록 놓아 버려라. 법에 매일 것도 없고 법을 벗어나려 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어느 곳에 불법을 떠난 밖에 따로 세간법이 있으며, 세간법을 떠난 밖에 별도의 불법이 있겠는가? 이에 조사께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켰던 것이다.

인 선인에게 주는 글

병고가 몸에 있으면 마음을 잘 거두고 바깥의 경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서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생사의 일은 크며 죽음은 신속하다[無常]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어 잠시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화[嗔心] 한 번 내더라도 삼업에서는 큰 허물이니, 혹시 좋거나 싫음이 있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항상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밖에서 와서 부딪치는 것을 마치 빈 배나 뒹구는 기왓장처럼 보면, 바깥 물건과 내가 모두 고요하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벽암록〉의 특징 및 사상

〈벽암록〉의 나오면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른바 평창(評唱, 해석)이라는 강의 형태가 생겼다. 설두중현이 〈경덕전등록〉에서 뽑은 공안 〈송고 100칙〉을 극근이 매우 높이 평가하며, 제자들에게 강의했던 강의록이 〈벽암록〉이다. 이 〈벽암록〉이 선종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자.

〈벽암록〉은 극근의 제자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널리 알려졌다. 간화선의 선구자인 대혜는 참선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 그 수행자가 유창하게 말을 잘 해서 정말로 깨달은 줄 알고 시험해보면 그것이 실제 참선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벽암록〉 내용을 반복 암기한 것임을 알고 탄식하였다.

그래서 대혜는 '이렇게 〈벽암록〉의 글귀만을 외우고 암기한다면 공안선이 아니라 구두선(口頭禪, 입으로만 선을 아는 것)에 떨어지고 말겠구나' 라고 탄식하고 〈벽암록〉 판목을 모아 불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벽암록〉이 결코 과소평가되는 선종서가 아니다. 〈벽암록〉 이후 조동종계에서 〈종용록〉 〈공곡집〉 〈허당집〉 등 비슷한 공안집이 출현했다. 또한 송대 이후 근자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선자들의 '종문(宗門) 제일서(第一書)'로 불린다.

다선일미

극근이 남긴 또 하나의 사상이 '다선일미(茶禪一味)'이다. 육우(727~808?)는 〈다경(茶經)〉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이 차"라고 할 정도로 차 마시는 것 자체를 수행과 결부시켰다. 귀로 찻물 끓이는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눈으로 다구와 차를 보고, 입으로 차를 맛보며, 손으로 찻잔의 감촉을 즐기기 때문이다.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찻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참선하는 마음상태와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물론 극근 이전부터 차와 관련된 공안(茶飯事·喫茶去)이 많았지만 차를 마시는 행위와 수행(禪)을 하나라고 보면서 다선일미가 저변화되었는데, 이는 극근에 의해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국가 중대사 전 '차' 마시며 정신 맑혀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⑫ 茶時와 다방

차가 가진 효능 실용화한 '다시'
중국 · 일본엔 없는 사례로 주목
〈용재총화〉〈제좌청기〉 등 기록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국가 제도
차 마시는 순서와 절차도 엄격







왼쪽 · 가운데 사진은 '다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용재총화〉. 오른쪽 〈송와잡설〉은 기자조선에서 선조 연간까지 이기(1522~1600)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다시' 제도가 사라졌음을 드러내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고려 시대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차를 마시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茶時)'라는 제도다. 이는 차의 활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특히 차가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효능을 실용화한 사례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중기까지도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공명심이 큰 사회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차문화가 발달했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차 활용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란 어느 시기부터 국가 제도에 활용했던 것일까. 이를 규명할 만한 고려 시대 문헌은 드물다. 다만 '다시'의 절차나 규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 시대의 서거정(1420~1488)의 〈제좌청기(齊坐廳記)〉와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이기(1522~1600)의 〈송와잡설(松窩雜說)〉 등이 있다. 조선 후기에도 '다시'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보이는데, 앞에 언급한 정보의 범주를 넘어서는 자료는 드물다. 그러므로 '다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재총화〉에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다. 서거정의 〈제좌청기(齊坐廳記)〉는 '다시'가 고려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유일한 자료이다. 먼저 '다시'의 절차를 언급한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살펴보니 '다시'는 다시청과 제좌청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이 같다고는 하나 실은 같지 않으니 대관은 풍교(風敎)를 규찰(糾察)하고, 간관은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는다. 대관은 지위마다 예의가 엄중하여 지평(持平)이 섬돌 밑에서 장령(掌令)을 맞아들이고, 장령은 집의(執義)를 맞으며, 집의 이하는 대사헌(大司憲)을 맞는 것이 상례이다. 평상시에는 다시청(茶時廳)에 앉고 제좌(齊坐) 날에는 제좌청(齊坐廳)에 앉는다.(臺官諫官°雖云一體°其實不同°臺官糾察風敎°諫官正君過失°臺官一位嚴於一位°持平下階迎掌令°掌令迎執義°執義以下迎大憲例也°常時坐茶時廳°齊坐之日°坐齊坐廳)'

윗글에 따르면 대관은 풍습을 살펴 바로 잡는 일을 맡았고 간관은 임금의 과실을 바로 잡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라 하였다. 그런데 대관의 예의는 엄중하며 품계에 따라 대사헌을 맞는 상례를 언급하여 품계의 질서가 엄정했음을 드러냈다. 그뿐 아니라 대사헌 이하 관료들은 평상시에는 다시청에 머물면서 국사를 논의하는 제좌가 있는 날엔 제좌청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헌이 관청으로 들어오면 그를 맞이하는 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차를 마시는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사헌은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모두 승상(繩床)에 앉는다. 아전 여섯 사람이 각각 탕약(湯藥) 그릇을 들고 여러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한 아전이 "약을 받들고 잔을 잡으라(奉藥執鍾)"고 외치고, 또 "바로 마셔라(正飮)"고 외치면 이를 마시고 "약을 내려 놓으라(放藥)"고 외치면 그릇을 물리친다. 또 한 명의 아전이 "바르게 앉아 공사를 바르게 하라(正坐正公事)" 하면 여러 사람이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揖) 다시 자리에 돌아가, 이윽고 둥근 의석(議席)을 당상에 깔고 모두 자리에 앉는다. 관직에 제수할 사람이 있으면 서명하고 탄핵할 일이 있으면 이를 논박한다.(大憲奇倚。其餘皆繩床。有吏六人。各執湯藥鍾就跪諸位前。一吏唱曰奉藥執鍾。唱曰正飮則飮之。唱曰放藥則去鍾°又一吏唱曰正坐正公事。諸位起揖還坐。遂鋪圓議席於堂上。皆下坐有拜職者。則署而經之。有彈覈之事。論駁之)'

윗글은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전에 차를 마시는 절차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차를 마시는 절차, 즉 찻잔을 들고,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순차가 엄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를 마시는 절차가 끝난 뒤, 관직에 제수할 사람이 있거나 탄핵을 할 사항 등을 처리했는데, 조선 중기에는 차를 약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원래 '다시'라는 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행된 국가 제도였고, 16세기 말까지 이어졌음이 드러난다. 고려 시대에는 차와 약으로 혼용해 불렸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조선 시대에는 약이라 분류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조선왕조실록〉〈태종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태종 때에 예조의 건의로 선왕과 선후의 기신재제(忌晨齋祭)에서 차를 대신하여 술과 감주를 쓰라는 조칙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왕실의 제사에는 차를 올리지 않았으니 이런 조치는 조선 시대 차문화의 전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던 징표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이후 왕실에서 차를 의례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약을 관리하던 다방(茶房)에서 차를 약재의 일종으로 관리하였던 것이다. 원래 다방(茶房)은 고려에서도 약방문을 수집하는 관청이었다. 고려 시대 차는 정신 음료였고, 왕실 의례에 사용하는 귀중품이었지만 그 범주는 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듯하다. 이규보는 〈신집어의촬요방서(新集御醫撮要方序)〉에서 다방을 이렇게 서술했다.

'옛 성현이 〈본초(本草)〉 〈천금(千金)〉 〈두문(斗門)〉 〈성혜(星惠)〉 등 모든 방문을 저술하여서 만백성의 생명을 구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권질이 너무 호번하여 열람하기에 곤란하다. 만일 시일이 오래 갈 병이면 의원을 찾는 것이 가하고, 모든 서적을 뒤져서 그 방문을 찾는 것도 가하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위급한 중병을 얻었다면 어느 겨를에 의원을 찾고 서적을 뒤질 수 있겠는가? 아예 정밀하고 요긴한 것만을 채집하여 위급을 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국조(國朝)에 다방(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 한 질이 있는데, 수집한 지 오래라, 탈루되어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었다. 지금 추밀상공(樞密相公) 최종준(崔宗峻)이 이것을 보고 애석히 여긴 끝에 그것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상께 아뢰니 상께서 흔연히 허락하였다.(古聖賢所以著本草, 千金, 斗門, 聖惠諸方。以營救萬生之命者也。然部秩繁浩。難於省閱。其若寢疾彌留。勢可淹延時日。則謁醫可也。搜諸書求其方。亦可也。至如暴得重病。蒼皇危急。則又何暇謁醫搜書之是爲也。不若採菁撮要°以爲備急之具也。國朝有茶房所集藥方一部°文略效神。可濟萬命°以歲久脫漏°幾於廢失矣。今樞密相公崔諱宗峻。見而惜之。思欲摹印以廣其傳。以此聞于上。上遂欣然頷可)'

윗글은 새로 편집한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에 쓴 서문인데, "국조(國朝)에 다방(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 한 질이 있는데, 수집한 지 오래라, 탈루되어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방은 고려 시대에도 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차를 함께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시대에도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차를 마셨던 '다시' 제도가 상당 기간 시행된 듯하다. '다시'가 고려에서 시행된 제도였음은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제좌청기(齊坐廳記)〉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헌부의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와 제좌이다. 다시는 다례의 뜻에서 따온 것이다. 고려와 국초(조선 초)에 대관(臺官)은 언책(言責)만을 담당하고 서무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 모여 차를 마시고 (모임을) 파하였다.(府之廳事有二 曰茶時曰齊坐 茶時者取茶禮之義 高麗及國初 臺官但任言責 不治庶務 日一會設茶而罷 國家制度漸備 臺官亦兼聽斷 履事惟繁 遂爲常仕之所 然非正衙也)'

윗글에서 서거정은 '다시'가 사헌부에서 행해졌던 일로, 다시는 차를 내는 절차임을 밝혔다. 그리고 '다시'가 고려 때부터 실행되어 조선 초기까지도 대관에서 차를 마시는 제도였음을 밝혔다. '다시'가 사헌부에서 대관이 국사를 처리하기 전에 차를 마셨다는 사실은 〈제좌청기〉와 〈용재총화〉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서술했다.

이기(1522~1600)의 〈송와잡설(松窩雜說)〉에도 '다시'를 언급한 기록이 있는데, 앞에 언급한 문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눈에 띈다.

'옛말에 실상은 없으면서 그 말만 전해 오는 것이 있으니, 야다시(夜茶時) 같은 것이 이것이다. 전중(殿中: 옛날 전중어사(殿中御史)로 감찰(監察)을 뜻함) 관원도 모두가 대관(臺官)인데, 본부(本府)에 출사(出仕)하지 않는 날에는, 대장(臺長)으로서, 성상소(城上所)를 맡은 자가 여러 전중을 모처에 모아서 대관을 분간만 하고 파하는 것을 다시(茶時)라 한다. 차를 마시고 그만 파한다는 말이다.(古語之無其實。而只傳其語者。如夜茶時之類是也。殿中之員。俱是臺官。本府不坐之日。臺長之爲城上所者。會諸殿中於某處。只分臺而罷。謂之茶時。言其啜茶而罷也)'

원래 〈송와잡설(松窩雜說)〉은 기자조선에서 선조 연간까지 이기(1522~1600)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으로, 명현(名賢)들의 일화(逸話)나 시화 등을 수집해 묶었다. 그런데 이 문헌에 "옛말에 실상은 없으면서 그 말만 전해 오는 것이 있으니, 야다시(夜茶時)같은 것이 이것이다."고 하였으니 '다시'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 제도의 가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그러나 '다시'라는 국가 제도가 차를 마신 후 맑은 정신으로 국사를 처리하고자 했던 선인들의 충심(衷心)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제도는 현대에도 활용해 봄직한 제도가 아닐까.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그릇된 인가를 구하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㉓ 인파면문(印破面門)

"여러분, 제방의 큰스님들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내세우며 '나는 선을 안다. 도를 안다' 하고 함부로 떠벌리지 말라. 말하는 솜씨가 아무리 그럴듯해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해도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일 뿐이니라. 만약 참되고 올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허물이 되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간절히 불법의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해야 할 뿐이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가 원만하고 분명해졌다면 바야흐로 비로소 할 일을 마쳤다 할 것이니라."

선수행자들이 제방의 이름난 노숙(老宿)들을 찾아가 인가(認可)를 구하고 또 인가를 받는 사례들은 예로부터 많이 있었다. 인가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자뻘 되는 사람이 공부해서 얻는 경지를 간파해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과거 선종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가 확철대오(確徹大悟)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성숙되지 않은 공부를 잘못 인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참되고 올바른 것이 아닌 일종의 폐단이다.

임제는 이 장에서 이 점을 환기시킨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가받았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아는 척 깨달은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자가 아만 따위의 상(相)이 붙어 어리석고 자신을 속이는 따위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5계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는 조목이 제정된 동기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은 척하는 증상만(增上慢)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자력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문(禪門)에서 유독 정견을 강조해 왔다.

한문 원문의 '인파면문(印破面門)'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도장을 찍어 입을 부셔버린다는 말로 잘못 인가한다는 뜻이다. 수도자가 자칫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그릇된 사도(邪道)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대혜종고의 〈서장(書狀)〉에도 '냉각면피(冷却面皮)'라는 말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인정에 끌리지 않고 앞면을 몰수한다는 뜻이다. 방편 상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제시되지만, 불교의 목적 깨달음은 곧 정견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모든 수행도 정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임제의 선법을 계승하여 송대(宋代)에 들어와 간화선을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대혜 선사가 16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물론 모함에 걸려들어 어처구니없는 유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이유가 간화선(看話禪)의 올바른 선법을 천명하기 위해서 묵조선(默照禪)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머리 깎은 외도들이 자기 눈을 밝히지 못한 채 남의 눈마저 멀게 한다.(剃頭外道 自眼不明 自誤他盲)"고 혹독하게 묵조배를 비판했던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간화선법을 지도하던 대혜가 자신이 머물던 경산(徑山寺)에서 시랑(侍郎)이었던 무진거사(無盡居士) 장구성(張九成)의 부친 재(齋)를 지내면서 영가(靈駕)법문을 하게 되었다. 법문 도중에 영가에게 게송을 설했는데 "神臂弓 一發에 射破千重甲이로다. 仔細拈來看호니 當甚臭皮襪이로다"였다. "신비한 팔로 활을 한 번 쏘니 천 겹의 갑옷이 뚫어지도다. 자세히 가져와 보니 냄새나는 가죽 버선이구나."

이 일이 있는 뒤 묵조편에 있던 진회(秦檜) 일당이 재자(齋者)였던 장구성이 부친의 재를 구실로 절에 모여 반역을 도모했다고 모함을 하여 당시 왕이던 고종에게 무고하여 장구성과 그 일파가 파직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 대혜도 체탈도첩(褫奪度牒)을 당하여 형주(衡州)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매양(梅陽)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들과 교신을 하며 선의 정법을 선양하다 후에 장구성이 다시 복직 승상이 되자 대혜도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정법을 내세우다 겪은 법난(法難)이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반연진여선과 여래선은 종밀 최상승선



세상 속 경전읽기

㉓ 오종선(五種禪)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원통불법(圓通佛法)의 요체(要諦)〉 '제3장 수증과 공덕 제1절 참선' 에서, 선의 종류를 1. 외도선[外道禪. 인과(因果)를 불신(不信)하고 유루공덕(有漏功德)을 위하여 닦음], 2. 범부선[凡夫禪. 인과를 믿고 유위(有爲)공덕을 위하여 닦음], 3. 소승선[小乘禪. 아공(我空)을 믿고 해탈(解脫)을 위하여 닦음], 4. 대승선[大乘禪. 아공 및 법공(法空)을 믿고 해탈을 위하여 닦음], 5. 최상승선[最上乘禪. 본래부처로서 일체 무루공덕(無漏功德)이 원만히 구족함을 신해(信解)하고 닦는 선. 즉 여래선과 조사선]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이하 도서〉의 5종선(種禪)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중국 화엄종 제5조인 당(唐)의 규봉종밀[圭峰宗密 · 780년 ~ 841년, 이하 종밀]은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배우고, 6조 혜능 대사의 남돈선(南頓禪)을 계승한 도원(道圓) 선사를 만나 출가하였다. 〈원각경(圓覺經)〉에 정통하고 청량징관(淸凉澄觀)에게 화엄학을 배웠다. 821년부터 종남산(終南山) 규봉(圭峰) 초당사(草堂寺)에서 저술에 전념하면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제창하였다.

종밀의 〈도서〉는 CE 857년 배휴[裴休 · 791~870]의 필사본이 전해지면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배휴의 필사본에 의거해, CE 955년 이후 계현(契玄)이 간행한 송판본[宋板本, 상하 2권본 〈도서〉의 모본(母本)]이 나왔다.

계현의 송판본은 10세기 말쯤 국내에 전래되어 유통되면서 1493년 화암사본(花岩寺本)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현존 판본이 이 송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1303년 설당보인(雪堂普仁)이 간행한 4권 본 〈도서〉는 영락북장 본(永樂北藏本), 가흥장 본(嘉興藏本) 등 여러 단계와 변화를 거쳐, 명장 본(明藏本) 계통으로 변천하였다. 〈신수대장경〉의 〈도서〉는 상1, 상2, 하1, 하2로 나눈 명장 본(明藏本) 계통의 4권본이다.

종밀은 오종선 중 최상승선을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 일행삼매(一行三昧), 진여삼매(眞如三昧)라고도 하며, 달마가 전한 것이라고 했다.

〈능가경〉의 4종선과 종밀의 5종선을 대비해보면, 〈능가경〉의 우부소행선은 '인무아[아공]'를 알고 닦는 것이니 종밀의 소승선에 해당하고, 관찰의선은 '법무아[법공]'를 알고 닦는 것이니 종밀의 대승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능가경〉의 반연진여선은 인무아나 법무아의 분별마저 떠나, 무아라는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며, 여래선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여러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수행이니 이 두 가지는 대략 종밀의 최상승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진성(眞性)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으나, 선정(禪定)은 깊고 얕음이 있어 계급의 차등이 있다. 잘못 헤아려 위(천상)를 좋아하고 아래(지옥)를 싫어하여 닦는 것은 외도선(外道禪)이요, 인과를 바르게 믿으나 역시 좋고 싫은 마음을 내어 닦는 것은 범부선(凡夫禪)이며, 아공(我空)을 깨닫고 진리의 단편만을 의지해 닦는 것은 소승선(小乘禪)이요, 아공과 법공(法空)의 이공(二空)을 깨달아 진리를 드러내는 수행은 대승선(大乘禪)이다.

이상 4종의 선정에는 모두 4색계정[四色定]과 4무색계정[四無色定]의 차이가 있다. 만약 돈오하면, 자심(自心)이 본래 청정하여 원래 번뇌가 없으며, 무루지(無漏智)의 성품이 본래 갖추어 있으니, 이 마음이 곧 붓다여서 붓다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이를 의지하여 닦는 것이 최상승선(最上乘禪)이며, 또한 이를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 일행삼매(一行三昧), 진여삼매(眞如三昧)라고도 하나니, 이것이 일체 삼매의 근본이 된다."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399b11-20〉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닦음의 길 9

바라밀, 피안으로 가는 길
〈彼岸〉

'파라미타', '바라밀', 불교와 관련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모임으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있고 '바라밀'이란 이름이 들어간 불교 합창단이나 선원, 요양원 등도 꽤 많이 보인다. 이 말이 불교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밀이 그 향기를 온 사방에 널리 전하고 있는 셈이다.

바라밀(波羅蜜)이란 범어인 '파라미타(paramit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때로는 정확하게 옮긴다고 해서 바라밀다(波羅蜜多)라 부르기도 한다. 바라밀은 대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도피안(到彼岸), 즉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행의 완성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므로 의미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차안(此岸)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바라밀이란 바로 번뇌의 차안에서 괴로움이 소멸되고 행복 가득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이 완성되면 불교의 이상향,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반야(般若), 즉 지혜라는 이름의 선장이 이끄는 배를 타야 한다. 사찰에 가면 간혹 법당 벽면에 반야용선(般若龍船)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배가 바로 우리를 열반의 언덕으로 데려다주는 지혜의 용선이다. 이 배는 지혜(智慧)의 선장을 중심으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이라는 특급 참모들이 힘을 합쳐 운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배는 대승호(大乘號)라 불리기도 한다. 소승(小乘)이 작은 배를 타고 혼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면, 대승은 모든 사람이 손에 손 잡고 어깨동무 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런데 바라밀은 완성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많은 실천 가운데 앞서 언급한 가진 것을 나누고 계율을 지키며, 욕됨을 참고 열심히 정진하며, 선정과 지혜를 닦는 여섯 가지를 6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는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실천체계로서 근본불교의 삼학(三學)이나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육바라밀은 삼학이나 팔정도를 대승불교 입장에서 계승 또는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근본불교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8정도에서 다루지 않은 보시나 인욕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들을 보강하고 있다.

육바라밀 외에도 화엄(華嚴)에서는 방편(方便)과 원(願), 역(力), 지(智) 네 가지를 더한 10바라밀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보살이 지혜를 얻고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이다. 먼저 방편은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며, 원은 열심히 정진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러한 서원(誓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행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역바라밀이다. 마지막은 지바라밀이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이 무분별지(無分別智), 즉 모든 분별이 끊어진 바라밀이라면, 열 번째 지바라밀은 무분별지를 생활 속에서 살려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산과 물의 분별이 모두 소멸된 지혜가 반야바라밀이라면 산과 물의 분별이 현실에서 살려지는 지혜가 지바라밀이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산과 물은 연기적으로 '하나'지만, 등산을 하려면 산으로 가고 수영을 하려면 바다에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를 '무분별의 분별'이라 부르기도 한다.

육바라밀은 대승호의 수장인 지혜가 수행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숙성이 잘 되어야 보시와 인욕 등의 수행이 잘 실천될 수 있다. 반대로 나머지 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그에 따라 지혜 역시 더욱 깊어지게 된다. 피안으로 가는 길에서 지혜의 선장과 다섯 참모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 법당에 불 켜는 것 '명상'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⑫ 마음 속 고락

12-1 삶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밤과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만을 생각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고 생각을 멈출래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잠이 겨우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고 진땀을 흘리며 깨보면 30분도 못잡니다. 그 사람에겐 괴로움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 실존적입니다. 그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죽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밝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2 실수만 하면 "그것이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스승에게 제자는 기가 질리고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 때문에 자책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부모나 스승)이 부족하다고 지적만 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나는 바보이고 못났고 결점 투성이라는 신념을 공고히 하며 삽니다. 입버릇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 반복해서 중얼대고 있음을 봅니다. 자책이나 후회 밑에는 자신을 갉아먹는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감히 표현 못하고 억압해버린 분노입니다. 좌절감은 분노를 낳고 분노를 억압하면 쌓여서 우울이 됩니다. 우울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잘못되었을 때 필요한 건 자책이나 후회보단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미래를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을 깨닫고 실수가 잘못이 아니라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우치면 성장이 있고 실수나 퇴보를 벗어날 수 있지만 좌절과 상실감과 박탈감에서 허우적대면 고통이 됩니다.

12-3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극한 고통이 되기도 하고,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갈 길을 가기도 합니다. 실패나 성공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고통과 행복도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군요. 바로 자신이 만들었군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리기만 합니다. 아닌가요?(웃음)

붓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일)은 그럴 만한 인연(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창조론은 절대자인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라고 가르쳤지요. 연기론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해결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도 누가 만들었다가 퍼뜨린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환경에서 생겨나서 번성하다가 때가 되면 약화될 것입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의 결과일 뿐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상황을 극복해가는 거지요.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그에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대처해야 되겠군요.

12-4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커다란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페스트 이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인 르네상스가 일어났듯이 코로나도 환상적인 신적 권능을 담보한 기존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을 비는 신앙만으로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만을 위한 종교나 신앙은 인종 차별과 종교 전쟁에서 보듯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마저 한계가 있고 깨우칠 게 많은 유한한 존재라는 붓다의 말씀처럼 무지한 마음에 등불을 켜는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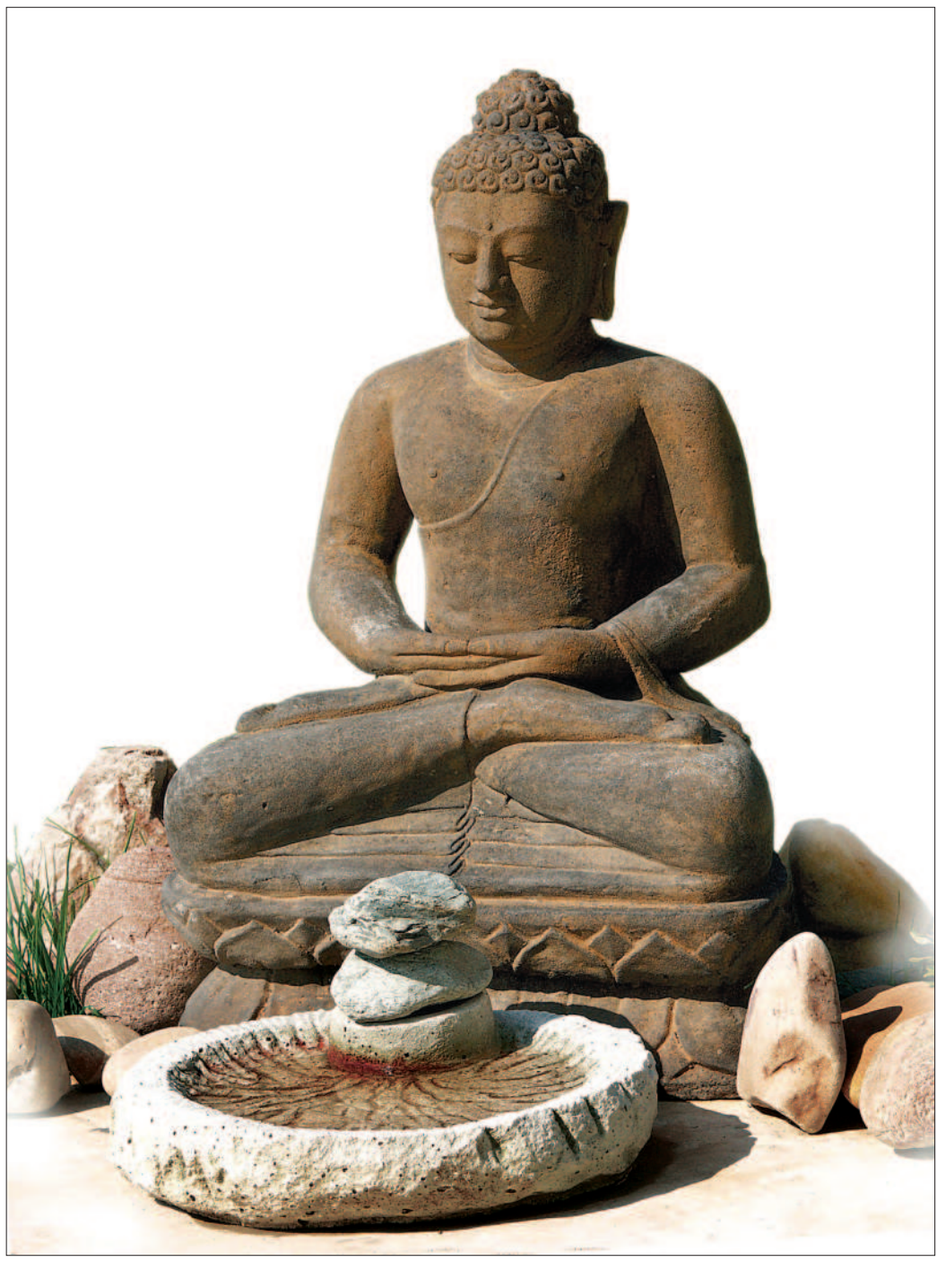
고통과 행복, 스스로에 달려
생각에 이름을 붙여봐 보라
마음의 움직임 파악을 시작

선풍을 크게 일으킨 마조 선사는 젊었을 때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묵언하며 용맹정진하였지요. 하루는 마조가 정진하는 선실 앞마당에서 스승 회양 선사가 기왓돌을 숫돌에 갈기 시작합니다. '쓱쓱' '싹싹' 돌 가는 소리가 좌선에 방해되었지만 마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좌선합니다. 그러나 며칠이고 계속되는 소음에 마침내 마조가 침묵을 깨고 스승께 화를 냅니다.

"스승님, 뭐하십니까?"
"보면 모르느냐? 기왓돌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스승님,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어찌 기왓돌이 거울이 되나요?"
"너도 마찬가지다. 꼼짝 않고 앉아만 있다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말을 때려야 되느냐?"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 오래 앉고 잠 안 자고 고행한다고 명상(선)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지요. 앉고 서고 걷고 눕고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깨어 바라보면 명상이고 무문관(수도원)에 들어가도 망상이나 피우고 졸기나 하면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상은 마음 법당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산속 동굴이나 혹독한 상황에서 면벽 좌선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에 등불을 켜면 명상입니다.



12-5 명상 가운데 원하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를 경우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에 이름 붙이기보다는 그 생각에 있는 중심 감정을 파악하고 요약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남' '화' '원망하는 마음' '원망 마음' '무시함' '무시' '업신여김' '업신' '비교함' '비교' '뽐냄' '뽐' '조바심' '조바심' '걱정' '두려움' '비관하고 있음' '비관' '나를 깎아내림' '깎아내림' '나를 책망함' '책망함' 이렇게 이름 짓고 마음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보면 마음의 움직임들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고 희미하게 흐르던 생각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 생각에다가 이름표를 붙여 보세요. 상황을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과장하고 있음' '과잉 해석하고 있음' 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봅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그 이름표를 떼봅니다. 또는 지우개로 칠판의 글을 지우듯이 이름들을 지워보세요. 마음 칠판에 그 생각이 지워졌나요?

12-6 다음 단계입니다. 마음 칠판에 좋은 생각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희망' '희망' '용기를 냄' '용기' '체념' '함께함' '믿음' '감사' '미소' '기쁨' 이와 같은 연습을 하노라면 어느덧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게 됩니다. 일체유심조(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이군요.

'나는 우울해' '나는 화가 나' 라는 일상 모드에서 '우울한 기분' '우울함' '화가 남' '화' 로 명명하는 명상 모드는 마음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부정적 기분이나 생각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화나 우울이 내가 아닌 감정에 불과하고 그 감정으로 파생한 비관적인 생각들도 내가 아니라는 통찰은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안아주는 힘도 생겨납니다. 내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깨어 살펴보는 명상 모드가 몸에 배고 생활화되지요.

12-7 이제 호흡을 보고 느낌을 보고 감정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깊이 바라보는 일련의 연기적 관찰인 숙고명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을 열고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리듬을 타다 보면 또 다시 내면의 소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마음 창고에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도 공존하기 때문이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재잘거림들은 그동안 싫다고 내팽개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보듬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며 칭얼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좋은 부분도 좋지 않은 부분도 모두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 수용입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부분을 내치고 무시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이 커지면 명상은 궤도에 진입했다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다가 몸의 특정 부위에 어떤 감각이 뚜렷하게 느껴지면 그 감각에 주의를 줍니다. 늘 긴장되어 있거나 뭉쳐 있는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을 살펴봅니다. 긴장하는 부위를 마주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좋지 않은 상황을 외면해왔음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픈 기억, 아픈 상처, 망각하고 싶은 트라우마들이 그 감각 안에 숨어 있음이 드러나면 깊은 자기연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아파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연민으로 대합니다. 연민어린 알아차림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라보고 안아줍니다. 어떤 느낌 감각 이야기가 나타나더라도, 호기심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탐구합니다. 탐구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칠각지七覺支 가운데 택법擇法 각지)

12-8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한지 알아차려 보세요. 어떤 감각이나 이야기가 떠올라도 허용합니다. 원치 않는 감정이나 혐오스런 생각도 어찌하려 말고,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허용하세요.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보노라면 호흡 너머 감각 감정 생각까지 알아차리게 되는군요. 어두운 마음마저 명상 대상이 되면 마음에 끄달리는 상태에서 마음을 부리는 상태로 진입합니다. 삶의 희생자에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으리라.' 단호히 결심하고 심호흡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반듯하게 앉습니다.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 . 내쉬며 '바로 여기' . 비교도 멈추고 판단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에 흠뻑 젖어 들어 보세요.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97 호 현대불교
2020년 6월 17일(음 4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한 걸음을 떼도 좀 더 인내성 있고 무겁게 떼어 놔야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 모든 믿음과 패기가 없고 용맹정진이 없다면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한 걸음을 떼도 무겁고 좀 더 인내성 있게 떼어 놔야 할 거고, 생각을 해도 좀 무겁게 하면서 종종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고, 한 걸음을 떼어 놔도 백 걸음 못지않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패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나무와 같이 마디마디는 있습니다마는 속은 속대로 같이 통해 있고 거죽은 거죽대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나 진배없는 전체 이 한 몸을 우리가 우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음과 양을 통해서 한데 합쳐진 우리 이 생명은 각자 각자 이 몸뚱이 하나에 생명들이 수억 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데 포섭해서 인연에 따라서 여러 마음들이 종합해서 한데 모인 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것만치 받는 겁니다, 죄도 선도. 그러니까 희미하게 넘기지 마시고 좀 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패기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이 한데 합쳐진, 그렇게 구성된 인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수만 가지의 생각이 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고 가라앉히고 하는 보당은 바로 자기 선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된 선장, 즉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안팎의 보당을…, 즉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자기 한 몸뚱이에 구성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도 저게 맞뚫렸습니다. 바깥으로 열고 나가는 것도 저 문 저걸 붙잡아야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도 저걸 붙잡아야 합니다, 문을 열려면. 본래는 문이 없는데도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도 문이 없다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으면서도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려도, 상대성 원리기 때문에 안의 보당을 누르는 것도 바로 이 보당이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려도 그 보당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당 하나에, 안팎이 붙어 있는 뚫린 보당 하나에 줄이 만 개가 있다면 만 개가 죄 각각이라는 얘깁니다. 무전통신 줄이, 즉 법망에 그 무전통신 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줄에 이건 우주의 보당을 누르는 우주 줄이고 이거는 삼천대천세계의 줄이고 이것은 또 소천세계 중천세계, 또는 이거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그런다면, 종합 원자력 발전소라면 요 줄은 요 줄대로 여기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 줄이라든가, 지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능 줄이 거기 있으니까 그 보당을 눌러서 하는 것은…, 요걸 요렇게 얘기해야 좋겠군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몸에 닿고 상대성에서 오는, '이게 까다롭게 넘어가겠구나.' 또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안 돌까.' 또 '나는 생활하는 데에 왜 이렇게 잘못될까.' 그 다양하게 수많은 가지가 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보당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당 줄에 있어요, 전부. 가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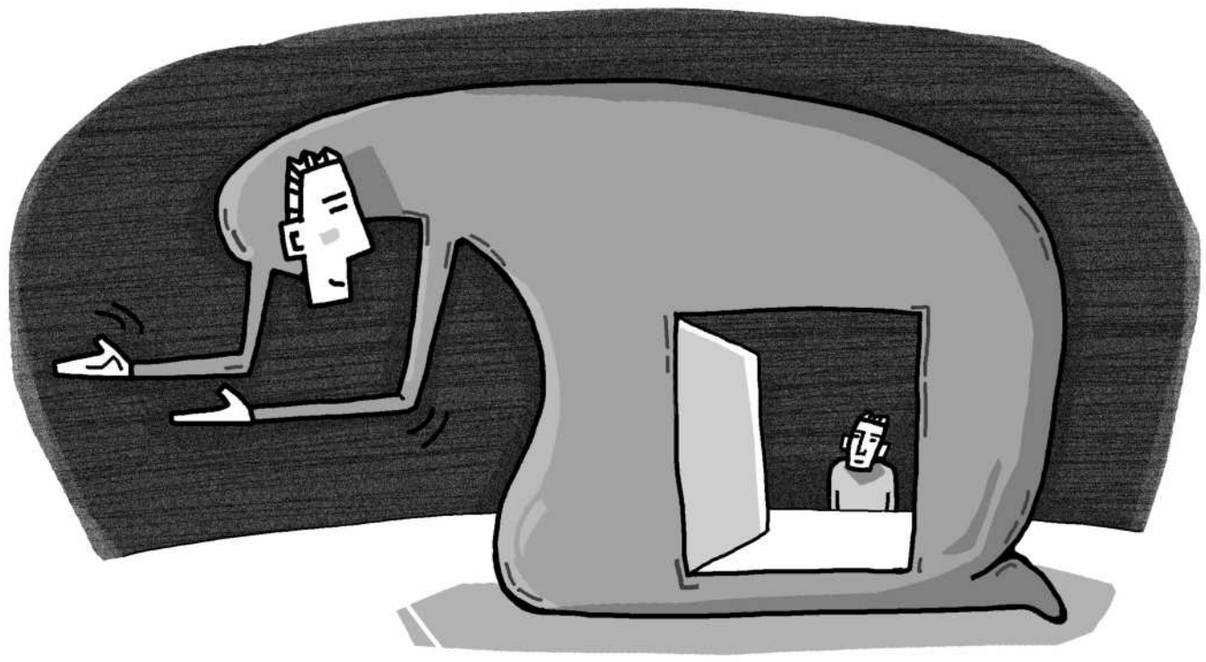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 가설된 거기에 내가 '아,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안 넘어갈까? 왜 머리가 안 돌까?' 할 때는, 지능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이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지능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능 줄의 보당을 누르는데 안으로 '아, 이건 여기서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지능에 관한 줄에 의해서 이 대나무 속이 뚫려서 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대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능이 만약에 발달이 되지 않았다면 거기 물리가 터지질 않습니다. 물리가 터지지 않음으로써 지혜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지능이다' 또는 '물리가 터져야 한다' 또 '지혜가 생겨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마디만 있다 뿐이지 한 줄입니다. 이름만 각각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지능과 물리가 터져야 하고 지혜가 생겨야 지혜가 모든 만법을 응용하는 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만 가지 법망의 그 무전통신 줄이, 세포 줄이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한 가닥으로써 한 보당을 누르는데 지금 까다롭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몸 안의 생명들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지만 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엑스 자로 넘어갑니다, 엑스로. 이게 둘이 한꺼번에 체인지가 돼 가지고 넘어가서 하나로 책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안이나 바깥 일이나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똑똑히 얘기를 해 드릴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면 안으로 항상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지켜보고 자기가 해 보고, 남에게서 알려고 하지 말고, 책을 보고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그것을 굴리면서 자꾸 실험을 해 보면서 자기가 터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일거삼득이 될 겁니다. 그것이 행선이며 참선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용(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석존께서 유(有)의 법의 모든 문제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무(無)의 법을, 무루의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유루와 무루를 한데 합쳐서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마디 하나하나, 요 세 계단이 마디가 있을 뿐이지 다 통해 있는데 통해 있는 마디 마디를 한데 합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바쁜 시기에 그대로 일거삼득이 되게끔 일심으로 들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건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죠? 여러분이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바다입니다. 요만한 물방울 하나라고 생각할 땐 물방울 하납니다. 이건 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룰 수도 있고 쪼끄맣게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생각해 가지고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이렇게 걸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육안으로 보는 우리 습에 의해서 보는 눈이고, 이건 습이 아닌 체가 없는 내 한 눈에서, 속에서 그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크게 내가 봤다 하면 큰 거고 작게 봤다 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체가 없는 그 마음은 항상 수만 가지의 보당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장이 보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보당은 다 자기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와서 닿는 대로 그것이 쪼끄만 거냐 큰 거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큰 원자력 보당에다가 한번 굴려서 누르면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따로 없지만 이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이가 뭐 저렇게 말을 해? 이름도 없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 내에서 무르익는 보리 이삭도 있듯이,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우리는 역력하게 배가 고픈 건 고픈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뜬구름 같으면서도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거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지혜에 달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능, 즉 말하자면 지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믿음과 패기와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지마는 이걸 사용을 못 한다면, 용을 못 한다면 이거는 천만금을 두고도 내가 쓰지 못하는, 못 쓰는

☞ 18면으로 계속

좀 더 진실한 믿음과 한번 해 보겠다는 패기로 물러서지 말아야

☞ 17면에서 계속

기계밖에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지능이 발달이 되지 못했으면 지능을 발달을 시킨다. 거기에 지능이 발달이 된다면 그냥 거기에 마디 하나가 있어서 그렇지, 그리로 통과가 된다. 즉 모든 만 가지의 물리가 터진다. 물리가 터지면 지혜가 터진다. 지혜가 나온다면 만 가지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 요거 재차 말한 겁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원자력이라면 체가 없는 마음은 수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테레비를 보고도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직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대성에서 자성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가정에서도 무슨 말을 하다가도 딱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수만 가지 천차만별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할 거 없이, 중간 거 소소한 거 뭐,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로 자기가 한 보당에다, 즉 말하자면 다 거기에다가 보당을 누르는 겁니다.

보당을 누른다 하니까 또 눌러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지는 게 보당이요, 안에다가 놓는 게 보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깥 보당하고 안 보당하고 둘이 아니게 저렇게 맞뚫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오고 간다. 둘이 얘기를 하는 데도, 이 말을 하는데 말을 준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은 벌써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그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데 원리가, 뜻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벌써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말의 뜻을.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만 알아서 의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 가지고 잠재해서 이렇게 한번 굴리면서 뜻이 거기서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벌써 알기 때문에 벽을 탁 쳤는데 봇장이 울리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첨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발달이 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고도로 발달이 된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 무한의 능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쓸 줄을 몰라요. 자기가 형성해 놨는데, 자기가 형성해 놓은 거를 자기가 쓸 줄은 아는데 지금 이 거죽에서 문 여는 보당, 즉 바깥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보당, 안에서 문 여는 보당, 이것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중략)

우리가 이것을 이 말 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뜻을 모르실까 의려하여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뱄어도 탯줄을 잡지 못하면 전체 부위에서 나오는 액체의 그, 자기의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탯줄을 언제나 자동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탯줄을 놓친다면 그 어린애는 떨어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탯줄을 잡지 않는다면 고아입니다, 고아. 어디서라도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수가 없고 자꾸 걸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보당은 안팎으로 맞뚫린 하나인데 수없이 우주 줄이 있고, 세계 줄이 있고 또 국가 줄이 있고, 또 사회 줄이 있고 또 우리 가정 줄이 있고, 내 몸의 줄이 있고 몸의 세포의 모든 기능의 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나한테 닥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몸으로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 상대를 만나야 할 텐데 참 까다롭다 할 때 바로 안에, 내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에, 내 이 바깥의 보당에 벌써 신호가 온 겁니다, 안에서. 그러면 안으로 다시 보당을 누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무전통신으로써.' 그럼으로써 이걸 안으로 누른다면 바로 안에서 직접 그쪽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 바깥 보당에서 바로 바깥 보당을 또 누릅니다. 그럼 만나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 보당을 반드시 누름으로써, 내가 전화통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알려 놓고 바깥으로 가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아주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도 나를 그렇게, 상대방에서 깔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주 융화성이 유유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안으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되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만약에 이 안으로 통과가 안 되고, 마음으로 통과가 안 되고 거죽으로 말을 해 봤자야 그건 백문선이 헛문선이야. 걸리고만 넘어가.

그러니 안팎을 다 응용하고 활용하려면 이 50% 50%가 맞먹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줄이 수만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건 내가 지혜가 있다면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작은 것도 생각이 되면 스스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저께도 테레비에서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나오던데 그것을 나오는 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도 있고 거짓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죠. 공치기를 하는데 이것이 벌써 며칠 전에 한 거를 재방송하는 게 있죠. 만약에 재방송하는 데다가 재방송을 하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을 아무리 내 봤던들 이미 벌써 지나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논다면 그건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직접 생방송을 할 때 마음도 내야 그것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림하는 데도 그렇죠. 지나간 거는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거, 다가오는 거를 생각하면서 잘 조절해 가면서 안팎이 없이 그렇게 여는 문도 바로 그 안에서 보당을 눌러야 하고, 안으로 드는 문도 바깥에서 안으로 보당을 눌러야 하는 것이 맞뚫렸다는 걸 아신다면 이게 공한 자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보당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보당…, 또 자꾸 지금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잘 이걸 포착하셔야 됩니다.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왔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줄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라는 게 조끄만 생각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큰 지혜로운 생각이 났다가도 아주 옹졸한 생각도 납니다. 옹졸한 건 옹졸한 것대로 쓰이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쓰일 때 자기를 언제나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자기 환경을 너무 잘 압니다. 자기의 마음 씀씀이도 더 잘 알고 지금 자기 앞에 처해 있는 환경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을 크게 생각을 해서 욕심내지 않아도 내 지혜가 자꾸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지능이 발달되고 활용을 하게 되자 이건 점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넓어져. 넓어지게 돼서 우주도 삼킬 수 있는 그런 넓은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스스로, 남이 벌써 나에게 큰 그릇이라고 담깁니다. 내가 담으려고 하기 이전에 벌써 담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 이름을 남겨 주는 거지 내가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름을 남겨 주는 것은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한마음이, 이름이 빛이 난 거지, 그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각자 있으시겠죠?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을 규명 지어서 부르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규명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상품에 이름을 붙여서 팔듯이. 그러면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질서를 지키기 위하고 어떠한 규명을 짓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지, 이름이 이름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이 이름이 아닙니다.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이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원자력 발전소의 문이, 쌍방으로다가 보당이 붙어 있으니" 이러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도,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름을 불러도 이름이 아닌 거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름으로 그냥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그 보당에는 수많은 줄이 하나하나 연결돼 있으니, 여러분이 작다 크다 없이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 안으로 굴려서 안으로 보당을 누르고서 하고, 또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안에서 보당을 누르고, 이렇게만 항상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참 억울하다는 걸로 한자리에 할 겁니다. 즉 말하자면 상품 자리, 중품 자리, 하품 자리가 한데 합쳐진, 즉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다양하게, 우주적으로도 그렇지마는 우리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말을 한다면 내 몸으로 얘기를 하려도 천만 가지가 돼요. 몸만 가지고 얘기한대도.

그러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진출해 나가는 이 활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이 천만 가지가 뭐, 가짓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탄생만 해도, 아니 그 줄만 잡아도, 그 줄을 잡고 보당만 누를 줄 알아도 내 몸뚱이는 잘 끌고 다닌다는 얘깁니다. 이 병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략)

당장 여러분 간이 파괴가 되고 이랬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예?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속의 그 생명들이 살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몸에 대해서만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의 부위에 양면의 보당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죠. 여기 근거지가, 바로 태양의 근거지도 여기요, 우주의 근거지도 여기요, 세계의 근거지도 여기요, 국가의 근거지도 여기요, 뭐, 전체가 다 여기니까. 줄줄이 여기입니다, 줄줄이. 줄줄이 사탕이죠. 줄줄이 사탕이에요, 뭐, 아주 그냥. 그러니 여러분 한테 닥치는 대로 겁내지 말고, 이건 패기가 있어야 하고 긍지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단군은, 즉 말하자면 거울과 칼과 방울을 가지고 나왔다 했는데 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요 마디만 있다 뿐이지, 요거는 다 일심에 들어 있는 거라. 거울은 태양과 같이, 크고 작고 한 게 없이 맑고 깨끗하고도, 청정하고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거울을 말하는 거죠. 칼이라는 것은 선하게든 악하게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거 악한 거를 한데 합친 비호같은 칼이라 이 얘깁니다. 자비의 칼. 이것은 칼이 칼이 아니라 이거야. 마음의 주장자의 그 비호같은 활용을 말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렇게 활용을 달랑거리고 해도 둥글기만 하더라. 어떻습니까? 둥글기만 하더라. 건드리기만 해도, 달랑달랑해도 여여하고 둥글기만 하더라 이거야, 응? 그러니 바깥으로 소리가 많이 나도 둥글게만 돌아가니 이것은 이익만 주고 충성이나 효도나 모든 사람 사는 방도, 의리와 도의, 사랑,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만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 천부적인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깨달으려면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깨닫는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난 깨달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부처가 되시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본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나와 남을 통해서 둥글게….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이익하게 하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남이 나를 이익하게 하고, 나를 이익하게 한다면 또 내가 남을 이익하게 하는 바로 동심으로서, 동체로서 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의리와 도의, 사랑, 자비이며 이것이 바로 진(眞) 생활의 활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부처님 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1일 일반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봤다, 봤어! 卍자 !!!



절에서 쓰는 卍자가 여기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다

어떤 뜻으로 새겼을까?

영원한 생명의 상징일까?

무엇이면 어떻고 누가 쓰면 어떤가?

卍자가 있든 없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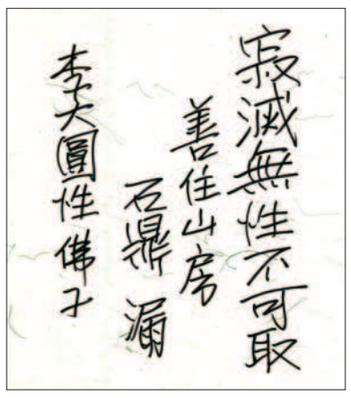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암각화 순례를 같이 갔던, 비구니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절 卍자를 봤다고 하는 것이다. 암각화 군락지 맨 끝 지점에서 봤다고 하였다. 그 비구니 스님의 평소의 언행으로 미뤄볼 때, 중요한 뭔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날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날 내가 직접 올라가 보았다. 영락없는 卍자였다. 놀랍고 반가웠다. 반가운 마음에 마음은 들뜨고 있었지만 찬찬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혹시나 오래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끔 몰지각한 사람들이 암각화 옆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뾰족한 돌을 주워서 암각화를 새로 새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암각화는 오래전에 새긴 암각화가 맞고, 새긴 솜씨도 군더더기 없이 잘 새겨졌다. 또 약간 위쪽에 있는 암각화에 이와 비슷한 기호가 등장함으로써 절 卍자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⑫ 석정 스님

글에서 다시 만난 그리운 불모



寂滅無性不可取, 善住山房 石鼎 漏
李大圓性 佛子

석정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으로서 한 시대 최고의 불모였다. 위의 글은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주신 글이다. 스님은 생전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나는 스님을 자주 뵐 수 있었다. 특히 일타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께서 오실 때면 석정 스님이 계셨던 선주산방에서 함께 뵙는 일이 많았고, 종종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기도 했었다.

어느 해, 우리 집 마당에 표주박이 열렸는데 일타 스님과 석정 스님이 오셔서 작은 박에 글과 그림을 주시고 가셨다. 석정 스님은 위의 글을 주시면서 박에 달마를 그려주셨고, 일타 스님은 '관일체법공(觀一切法空)' 이라는 글을 박에 써주셨다.

스님과는 가깝게 산 이유로 따로 서신으로 주고받을 일은 없었다. 위의 글은 스님께서 말씀 대신 주신 글 중 하나다. 글은 몇 글자 되지 않지만 그 뜻과 의미는 그 어떤 글보다 깊고 넓다. 문장은 다름 아닌 〈대방광불화엄경〉 '세주묘엄품' 중에 있는 게송의 한 구절이다. 그날, 나는 스님께서 주신 글 한 줄로 많은 공부를 했다.

불신보변제대회(佛身普遍諸大會)
충만법계무궁진(充滿法界無窮盡)
적멸무성불가취(寂滅無性不可取)
위구세간이출현(爲救世間而出現)

"부처님의 몸은 대회에 두루 계시어, 법계에 충만해서 끝까지 다함이 없다. 적멸은 자성이 없어서 취할 수 없으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신다"

'세주묘엄품' 의 게송은 화엄회상에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출현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이다. 스님은 왜 많고 많은 부처님 글 중에서 위의 글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니 늘 부처님을 그리며 살았던 스님으로서 가장 당연한 글이었다. 그렇게 스님은 늘 부처님을 손으로 마음으로 그리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이다. 많은 게송의 문장 중에서 가장 아끼신 문장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부처님의 참모습을 글로 그려주신 것이다. 늘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있지만 그날은 특히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스님은 따뜻하고 인자했다. 말이 없는 모습에서도 따뜻함은 넘쳤고, 어쩌다 주시는 말씀에서는 인자함이 넘쳤다. 한 번도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조용한 미소로 하실 때가 더 많았고 말씀을 내실 때는 정다운 마음으로 하셨다.

이른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12살 때부터 부처님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님의 붓 끝에는 늘 부처님이 마르지 않았다.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과분한 그림들을 과분하게 받았다. 그렇게 받은 스님의 그림들을 대할 때마다 스님의 깊은 불심과 원력이 다시 가슴을 데운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오랜 세월을 불모로 살다 가신 스님은 생전에 부처님 말고는 마음에 둔 것이 없었다. 원적에 드실 때에는 육신마저 미련 없이 회향했다. 스님은 생전의 의지대로 자신의 육신을 동국대 경주병원에 기증했다. 다시 스님의 글 속에서 스님을 만난다.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 왼쪽)과 대원성 보살.